

갑진개화혁신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

포덕145년(2004) 10월 2일(토) 10 : 00 - 12 : 00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

주최 : 천도교중앙총부

후원 : 문화관광부

갑진개화혁신운동 100주년 기념

학 술 발 표 회

포덕145년(2004) 10월 2일(토) 10 : 00 - 12 : 00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

주최 : 천도교중앙총부

후원 : 문화관광부

학술발표회 진행시간표

등록 9 : 30 - 10 : 00

제 1 부 개회식 10 : 00 - 10 : 20

- 개식
- 국민의례
- 청수봉전
- 심고
- 주문3회 병송
- 개회사 : 종무원장
- 격려사 : 교령
- 심고

제 2 부 발표회 10 : 20 - 12 : 00

<주제발표>

제 1주제 : 民會設立을 통한 甲辰革新運動의 전개와 생활사적 의미
발표자 : 이용창(중앙대)

제 2주제 : 甲辰革新運動을 통해 본 복식의 변화
발표자 : 김용문(원주대학)

제 3주제 : 1910년 전후 천도교의 위생론 -치병에서 위생으로-
발표자 : 신동원(한국과학기술원)

<토론 및 질의 응답>

토론자 : 윤석산(한양대 교수) / 이은주(안동대) / 성주현(경기대)

民會設立을 통한 甲辰革新運動의 전개와 생활사적 의미

이 용 창(중앙대 강사,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연구원)

머리말

- I. 교단재건을 위한 민회설립 과정과 갑진혁신운동의 추진
 1. 교단재건운동의 준비·계획
 2. 민회설립을 통한 갑진혁신운동의 추진
 - (1) 민회설립 논의와 大同會
 - (2) 민회설립 추진과 中立會
 - II. 進步會의 설립과 갑진혁신운동의 전개
 1. 설립과정과 시기에 대한 재검토
 2. 성격에 대한 재검토: 일진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III. 진보회 강령을 통해 본 생활상의 변화
 - IV. 진보회 지방지회의 구성
- 맺음말

머리말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좌절 이후 海月 崔時亨을 중심으로 전개된 교단의 재건과 통합은 수재자인 孫秉熙·孫天民·金演局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이루어졌다. 최시형 생존 당시에는 3인 중 누구에게도 교권이 집중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1898년 6월 최시형이 순도한 후 손병희는 자신을 정점으로 하는 단일지도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1901년 3월부터 일본 '外遊'를 통해 문명개화노선의 확고한 의지를 계획하고 실행했다.¹⁾ 손병희

1 대한제국기 손병희의 동향과 문명개화노선 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은희, 1990 「東學敎團의 '甲辰開化運動'(1904~1906)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金晷宅, 1990 「韓末 東學敎門의 政治改革思想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曹圭泰, 1990 「舊韓末 平安道地方의 東學--敎勢의 伸張과 性格에 대한 檢討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21,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崔起榮, 1994 「韓末 東學의 天道敎로의 개편에 관한 검토」 『한국학보』 76, 일지사; 黃善

는 일본 '외유' 중 두 단계의 민회운동을 준비·계획했다.²⁾ 이것은 동학에 대한 공인과 정치세력화 시도가 맞물린 '교단재건운동'의 실현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손병희를 중심으로 전개된 이 시기의 민회운동은 동학교단의 3대 혁신운동 중 하나인 '甲辰革新運動'³⁾을 일컫는다. 즉 1904년 2~3월의 大同會 → 7월의 中立會 → 9월(양력)의 進步會로 이어지는 민회설립을 통한 교단의 재건운동이며, 진보회는 종교적인 힘을 통한 政治의 변혁, 즉 '敎政一致'의 실현을 위한 핵심이었다. 손병희는 정치와 종교는 매우 유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대적 조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⁴⁾ 따라서 대한제국 정부의 정치개선이나 종교의 자유를 이루기 위한 민회운동의 과정에는 '敎政一致'를, 일진회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敎政分離'를 적용시켰다.

진보회는 종교적인 의미로써 뿐만 아니라 당대의 사회적·정치적 현상을 살피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단발·흑의로 대표되는 '근대적 생활상'의 표현을 확인할 수 있고, 집단적·조직적인 소통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나타내는 '근대적 시민의식'의 일단을 찾을 수 있다. 즉 '수십만 이상이 동시에 머리를 깎고, 검정 옷을 입고, 문명을 외치며 보국안

嬉, 1992 『한국근대사상과 민족운동 I-동학·천도교를 중심으로』, 혜안; 이용창, 2001 「한말 孫秉熙의 동향과 '天道敎團再建運動」, 『中央史論』 15, 韓國中央史學會; 曹圭泰, 2001 「일제의 한국강점과 東學系列의 변화」, 『한국사연구』 114, 한국사연구회; 金正仁, 2002 『日帝強占期 天道敎團의 民族運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인, 2002 「孫秉熙의 文明開化路線과 3·1運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9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 민회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지역에서 住民이 자치를 목적으로 조직한 모임을 가리킨다. 민회와 정치의 관계는 뚜렷한 구분이 있을 수 없고 그 형태도 다양하다. 다만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에서 사용된 민회의 개념과 범주는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때의 민회는 문명개화를 표방하는 정치결사이자, 근대적 정당의 초기 형태로 볼 수 있다. 동학교단측의 자료에도 1903년 제1단계의 교단재건 운동과정에서 민會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강한 정치성을 띠고 민회를 표방하며 등장한 것은 一進會가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3 동학·천도교단에서 후대에 정리·편찬한 敎史에는 갑진혁신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천도교창건사』, 『義菴孫秉熙先生傳記』(동기념사업회, 1967), 『天道敎百年略史』(上)(1981, 천도교중앙총부) 등). 다만 연구자에 따라서는 '갑진혁신운동'(白世明, 1975 「甲辰혁신운동과 東學--孫義菴의 救國運動과 敎政分離--」, 『韓國思想叢書』III, 한국사상연구회. 이 글은 『韓國思想』 6(한국사상연구회, 1963)에 발표된 글이다), '갑진개화혁신운동'(李鉉淙, 1974 「甲辰開化革新運動의 顛末」, 『韓國思想』 12, 한국사상연구회; 조항래, 1994 「愛國啓蒙運動에서 본 甲辰開化革新運動」, 『芝邨金甲周敎授華甲紀念私學論叢』; 趙恒來, 1995 「東學의 甲辰開化革新運動」, 『韓國思想』 22, 한국사상연구회), '갑진개화운동'(이은희, 앞의 논문)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필자는 시기적으로 1904년을 전후로 지속되었고, 종교적·정치적으로도 강한 지향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단재건운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4 손병희는 1912년 4월의 '49일 煉性祈禱式'에서 "天道敎는 物과 心을 二元으로 보지 아니하고…… 唯心에 屬한 것도 아니며 唯物에 屬한 것도 아니요…… 그 作用의 點에 잇어는 物心이 並行하는 것"이라는 性身雙全의 원리를 설명하였다. 이어서 "政治事와 道德事는 人生問題의 根低에서 決코 分離야야 볼 것이 아니요 唯一의 人乃天 生活의 表現에서 그가 制度로서 나타날 때에는 政이 되고 그가 敎化로 나타날 때에는 敎가 된다"고 하였다(李敦化, 1933 『天道敎創建史』, 『東學思想資料集』 貳(아세아문화사, 1978), 244~245쪽).

민을 일으켜 開明을 주장하고, 民權에 대한 민중적 요구가 생겨남은 물론 구체적으로는 신교육의 발흥을 자극하고, 신문·잡지 등에도 영향을 주고, 이외 직접·간접으로 민족 의식의 발달에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다.⁵⁾

민회설립을 통한 갑진혁신운동의 전개와 그것이 갖는 생활사적 의미를 미시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다만 1904년을 전후로 전개된 동학교단의 민회운동 과정을 '교단재건운동'이라는 큰 틀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제1단계는 1903년 초(중순)부터 러일전쟁 직전까지이다. 당시는 손병희가 일본 망명객들과 정부개혁의 대의에 협의하고 일본 정계·군부와 연계한 후 이를 통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목적을 이루고자 준비·계획하던 시기이다. 제2단계는 '일로전쟁의 기회를 이용한 국가 권익의 도모'였다.⁶⁾ 이것은 제1단계의 연장인 동시에 '大革命' '大改革'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2단계는 대동회 → 중립회의 민회설립 과정과 진보회로 이어지는 민회운동의 실질적인 주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두 단계에 걸친 동학교단의 '교단재건운동'과 각 시기 민회운동의 전개를 추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진보회로 대표되는 민회운동이 당시대인들의 생활에는 어떤 변화를 주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 기왕의 연구와 자료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장에서 강령 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I. 교단재건을 위한 민회설립 과정과 갑진혁신운동의 추진

1. 교단재건운동의 준비·계획

동학교단의 재건운동은 동학에 대한 공인과 정치세력화 시도가 맞물려 러일전쟁을 전

5 李敦化, 「東學의 史的考察(承前)」, 『新人間』 제4호(1926.8), 17쪽. 이돈화는 처음으로 '갑진혁신운동'의 용어를 개념화하고, 그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개화의 상징으로서 단발이나 양복 등이 일반인, 특히 부녀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물론 좀더 시간이 흐른 뒤였다. 이와 관련된 당시의 변화된 생활을 소개한 글로는 간략하게나마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엮음·임종국선집 3, 1995 「단발령과 두발의 변화」, 『한국인의 생활과 풍속』(상), 아세아문화사, 245~261쪽; 김도훈, 1999 「의관에서 패션으로」,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1, 역사비평사, 153~169쪽.

6 天道敎靑年敎理講演部, 1920 『天道敎會史草稿』, 『東學思想資料集』 壹, 510~511쪽; 『천도교창건사』, 221쪽.

후로 크게 두 단계의 과정을 통해 준비·계획·추진되었다.

제1단계는 러일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03년 초(중순)부터 준비·계획되었다.

손병희는 러시아와 일본이 조만간 開戰할 것이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반드시 露國과 宣戰하여 勝戰國의 地位를 獲得하는 것이 無上의 策이 될”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日本の 軍事當局과 議論이 맞지 않으면 안될 것”임을 밝혔다.⁷⁾ 즉 이때는 무엇보다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친러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당면목표였다.⁸⁾ 당시 손병희의 측근으로 일본 참모총장 다무라(田村)와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해 논의하던 權東鎭·趙義淵은 손병희와 다무라의 만남을 주선했다.

그러나 당시까지도 일본은 러시아에 대항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러한 시기에 다무라가 조희연을 만나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동학교단과의 연계가 이루어진 것이다.⁹⁾ 권동진·조희연이 손병희와 함께 논의하고 목적했던 것은 獨立協會 이래 정치적으로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던 일부와 동학교인들을 동원하여 일종의 ‘民黨’을 만드는 것이었다. ‘민당’이 조직되면 이들을 동원하여 무력을 통해서라도 친러정권을 제거한 후 자신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한편 손병희는 권동진과 함께 다무라를 만나 전쟁의 이해관계를 말하고 보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일본 군대를 商人으로 꾸며 비밀리에 각지의 不通商港口에 투입하면 敎人 수십만 명이 호응해서 한성을 공격하여 친로세력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함께 러시아를 공격하여 東洋平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기맥을 통했다. 이어서 손병희는 동생 孫秉欽을 국내로 보내 이러한 계획을 교인들에게 알림으로써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日本 兵士 秘密히 發할 時에 忖도한 道儒를 指揮하리니 道儒로 하여금 刷新上待하여 大機를 勿失” 하도록 당부했다. 그러나 국내 교단조직의 동원 임무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오던 손병희가 8월 3일 부산에서 病死하고, 다무라도 8월 5일 急死하고 말았다.¹⁰⁾

7 『천도교창건사』, 210~211쪽.

8 당시 일본 망명객들이나 유학생들도 친러세력의 타도를 당면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줄고, 2001 「한말 최린(崔麟)의 일본 유학과 현실인식」, 『역사와현실』 41, 한국역사연구회, 251~255쪽).

9 「韓末政客의 回顧談: 天道敎重鎭 權東鎭氏(5)=孫秉熙氏와 幄手」, 『東亞日報』 1930년 1월 31일, 2면, 「韓末政客의 回顧談: 天道敎重鎭 權東鎭氏(6)=乾坤一擲의 大計劃」, 『동아일보』 1930년 2월 1일, 2면; 「韓末政客의 回顧談: 天道敎重鎭 權東鎭氏談(6)=李祥憲는孫秉熙」, 『朝鮮通信』 1930년 2월 17일.

10 「본교력스」, 『天道敎會月報』 1915년 2월호, 18쪽; 『천도교회사초고』, 503쪽; 天道敎敎理臨時講習會, 1920 『天道敎書』 III, 『亞細亞研究』 통권 11호(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3), 44

이로써 일본과의 협력을 얻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루고자 했던 동학교단의 제1단계 재건운동은 일단 중지될 수밖에 없었다.¹¹⁾

손병희는 이를 매우 애석하게 여기면서도 ‘일이 바르고 이치를 따르면 하늘이 반드시 돕는다.’는 신념에서 국내의 몇몇 두목을 일본으로 불러 대책을 논의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일본으로 오던 朴寅浩·李鍾勳·洪秉箕 등이 고베항(神戸)에 도착했지만 내리지도 못한 채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¹²⁾

한편 李容九도 1단계 재건운동의 과정에서 일본과 국내를 오가면서 일을 추진했다고 한다. 즉 이용구는 1901년 초부터 손병희와 함께 일본에서 머물다가 귀국한 후 “빈번히 일본을 왕래” 하던 중 1903년 초 주요 두령들과 함께 “革命之方針”을 밀의하고, 10월에는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적절한 시기를 논의하고 돌아왔다는 것이다.¹³⁾

이러한 정황들로 보아 손병희를 비롯한 동학교단의 재건운동은 이미 1903년 초(중순)부터 두세 차례에 걸쳐 준비·계획된 것은 분명하다. 실패의 원인은 내외적인 조건이 충분하게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병희는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즉시 민회설립을 지시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교단재건운동을 추진하게 된다.

민회설립을 통한 제2단계의 교단재건운동은 제1단계의 연장이었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손병희는 ‘일본측’에 군자금 1만 원, 적십자사에 3000원을 각각 기부하고,¹⁴⁾ 국내의 교단 내 두목 40여 명을¹⁵⁾ 불러 세 가지 計策을 말

8~449쪽; 『천도교창건사』, 211~212쪽. 육군 참모본부 차장 다무라 이요조(田村怡與造)는 1903년 10월 1일 도쿄의 적십자병원에서 사망했다. 사후 중장에 추서되었다(朝日新聞社 編, 1994 『朝日日本歴史人物事典』 上, 朝日新聞社, 1052쪽; 최기영, 1994 『韓末 東學의 天道敎로의 개편에 관한 검토』 『韓國學報』 76, 일지사, 101쪽).

11 일본의 입장에서 손병희의 말을 믿고 독자적으로 군대를 동원하고자 계획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동학교단 또한 실행행사를 위한 내적인 결집은 나름대로 가능했을 터이지만 외적인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이은희, 앞의 논문, 29쪽; 최기영, 위의 논문, 101~102쪽).

12 주 9)와 같음. 권동진의 회고에 의하면 이들이 의심을 받은 것은 한국 정부가 보낸 자객 高永根·尹孝定이 禹範善을 살해하기 위해 渡日한다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3 朴衡采, 1915 『侍天敎宗釋史』,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9(史芸研究所, 1996), 150~151쪽; 康弼道, 1944 『東學道宗釋史』,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29, 411~412쪽. 권동진의 회고에 따르면 이용구가 손병희의 뜻을 전달·실행할 수 있는 핵심 두목이었다는 점은 일치한다.

14 陸軍省(『천도교창건사』, 221쪽), 大藏省(『천도교회사초고』, 510쪽; 『천도교서』 Ⅲ, 449쪽), ‘일본 정부’(『본교력스』 『천도교회월보』 1915년 2월호, 19쪽) 등 교단내의 자료도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2, 375쪽, 1904.9.29, 『進歩會員ト稱スル韓民集合ノ件ニ關スル具報』의 別紙 私信 「上件에 관한 忠章의 探查內容」. 총장은 千章郁이다.

15 일본에 간 40명의 명단은 『天道敎百年略史』(上)(천도교중앙총부, 1981), 346쪽에 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朴寅浩·李鍾勳·洪秉箕·文學洙·李謙洙·羅龍煥·韓用九·朴永九·金案實·李斗衍·羅仁協·金裕永·韓華錫·姜益周·任仲浩·吳膺善·方燦斗·金明濬·洪基億·洪基兆·柳志薰·盧錫璣·金永學·林禮煥·金學洙·金洛喆·金洛鳳·元容駟·郭騎龍·權秉惠·李鍾玉·鄭宗赫·鄭宗郁·李貞鳳.

하고, 이 중 “周力大行함이니 日露戰爭의 機會를 利用하여 我國權益을 圖” 하기 위한 세 번째 계획의 추진을 지시했다. 즉 일본이 전쟁을 벌이는 동안 교인 수십만을 동원하여 전쟁에 참여하면 일본이 반드시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고, 이 기회에 일본과 밀약하여 러시아를 공격하면 첫 번째나 두 번째의 계획, 즉 ‘大革命’·‘大改革’도 모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¹⁶⁾

제2단계의 교단재건운동은 앞서의 무력을 동원한 계획과도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일본의 ‘공식적인 전쟁’의 상황을 이용하여 교인들을 동원해서 일본을 군사적으로 원조한다는 것, 그리고 일본의 후원으로 한국 정부를 혁신한다는 것 등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그 구체적인 계획의 실행과정에서 이를 담보해 갈 구심점으로써 民會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2. 민회설립을 통한 갑진혁신운동의 추진

(1) 민회설립 논의와 大同會

① 『천도교창건사』에 의하면, 1904년 2월 손병희의 부름을 받고 일본에 갔다가 돌아온 주요 두목들이 경성에 모여 대동회를 조직하고, 이어서 7월에는 중립회로 고쳐 각지로 발문했다고 한다.¹⁷⁾ 그러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중립회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만 기록하고 있다.

② 『천도교서』에 의하면, “대동회를 조직하려다가 성립치 못하고 해산” 했고, 7월에 중립회로 개칭했다고 한다.¹⁸⁾ 즉 시기도 없이 아예 계획과정에서 철회했고, 7월에 중립회로 개칭했다는 것이다.

③ 『천도교회사초고』에는 대동회 설립 논의에 대한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동회를 중립회로 개칭한 것도 아니며, 아예 “중립회를 조직”¹⁹⁾ 했다고 단정하고 있다. 다만 손병희의 三計에 대해 “李容九 등이 惴惴하여 마침내 그 計를 行치 못하다.”는 것이나,²⁰⁾ 1904년 2월 이용구가 “비밀리에 경성에서 각지 敎頭를 만나 時事를 密의하고 장차 민회를 일으키고자 하였으나 군사상 계엄이 심하여 가벼이 일으키지 못하고, 또 東京으로 가서 시국을 살핀 후 돌아왔다.”²¹⁾는 것 등의 내용으로 볼 때 대동회로 상징되

16 『천도교회사초고』, 510~511쪽 ; 『천도교창건사』, 221쪽.

17 『천도교창건사』, 221~222쪽.

18 『천도교서』 III, 449쪽.

19 『천도교회사초고』, 511쪽.

20 위와 같음.

21 『시천교종역사』, 151쪽 ; 『동학도종역사』, 412쪽.

는 일련의 민회설립 계획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²²⁾

특히 초기 敎史자료인 「본교력스」의 경우는 대동회뿐만 아니라 중립회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이것은 자료의 간행시기별로 볼 때 「본교력스」나 『천도교회사초고』에는 없던 대동회가 『천도교서』에 처음 언급되지만 설립도 되지 못하다가 『천도교창건사』에 이르면 마치 대동회가 조직되었다가 중립회로 바꾼 것처럼 기록됨으로써²³⁾ 대동회가 당대 조직된 역사적 실체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대동회에 대한 동학·천도교측의 실체화는 후대에 정리된 敎史인 『天道敎百年略史』(上)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 즉 1904년 초 손병희의 명으로 일본으로 갔던 40여 명의 두목들이 “장차 大擧할 일을 의논할 때 會名을 「大同會」라 하고 비밀리에 道人을 조직”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결성하지 못하였다.”²⁴⁾고 하여 구체적인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결국 대동회는 그 실체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1904년 2월경에는 그와 유사한, 또는 대동회 자체에 대한 논의는 일정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형식적인 논의과정에 그치고, 구체적인 논의나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중립회 설립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2) 민회설립 추진과 中立會

중립회는 대동회의 실체와는 별개로 1904년 7월로 공식화되고 있다. 교단측의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7월에 박인호·홍병기·이중훈·嚴柱東·(金莫培)·羅龍煥·金明濬·全國煥·朴衡采·鞠吉賢·崔榮九·鄭璟洙·李鍾球 등이 慕華館 山房에 모여 (대동회를) 中立會를

22 『천도교서』 III, 455쪽에는 1904년 3월 함흥에서 尹亨天 등이 '봉기'했다가 대대적인 탄압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내용은 1904년 3월 함흥 일대 동학의 동향에 대한 일본측의 보고와 일치한다. 즉 1904년 3월 咸興府에 동학당이 봉기해서 “우리(즉 일본) 군대 및 외국선교사에게 危害를 줄 우려가 있다”는 전보에 따라 일본군은 3월 19일 병력을 보내 경계하도록 했다. 다음 날 20일 밤 11시 함흥지방의 동학 지도자 尹亨天·承載元·金學宇·高昌均의 지휘로 150여 명이 모여 있다는 첩보에 따라 일본군은 2소대를 보내 습격했다. 이 과정에서 김학우 등 5명은 총을 쏘며 저항하다가 사살되었고, 36명이 체포되었으며 이 중 20명이 부상을 당했다. 윤형천·송재원은 체포되어 3월 23일 공판 수속을 마치고 총살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석방되었다. 또한 고창군을 농친 일본군은 관찰사에게 체포를 일임하였고, 22일에는 동학당 12명을 체포했지만 끝내 고창군은 체포하지 못했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 22, 362~363쪽, 1904.3.28, 公第12號 「我軍隊ノ咸興府ニ於ケル東學黨ニ關スル情況顛末報告ノ件」;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2, 365쪽, 1904.4.30, 公第15號 「咸興府ニ於ケル東學黨處分ニ關シ再報ノ件」; 『皇城新聞』 1904년 4월 12일자 잡보 「東匪處律」).

23 예컨대 『천도교창건사』, 222쪽에는 함흥에서 일어났던 윤형천 등의 사건을 1904년 7월 중립회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포함시켜 기록하고 있다.

24 『천도교백년약사』(상), 345~346쪽.

(개칭하여) 조직하다.²⁵⁾

중립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교단측의 기록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光武 8年 甲辰 7월 北接 法大道主 義菴, 敬道主 春菴 명의의 「敬通」을 통해 중립회의 취지·목적과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²⁶⁾ 「경통」의 본문은 대략 다음과 같다.

국가의 존망이 위험에 빠져 통곡할 따름이더니 일본이 동양을 지키기 위해 포학한 러시아와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는 반드시 하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시기를 맞이하여 한국은 內修外交에 힘써야 하는데도 안과 밖, 위와 아래가 모두 “衛國濟衆之誠”이 전혀 없으니 통탄할 지경이다. 따라서 전국의 동학교도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일어나 위아래의 쌓여 있는 탐학과 찌꺼기를 씻어내고 창명대도를 이룰 기회가 왔으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손병희는 이 「경통」을 통해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동양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살기를 바라지 않는 결의로 전쟁에 임한 것이므로 반드시 일본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²⁷⁾ 이어서 손병희는 자신이 ‘외유’하여 천하의 형편을 두루 살펴 앞으로 나아갈 방략을 여러 해 연구하다가 현재의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이므로 지시사항을 조금도 위반함이 없이, 한 마음으로 “創先師之大道” 하기 위해 명심할 사항을 지시하고 있다.

취지·목적은 나타내는 「경통」에 이어 ‘後錄’에는 22개의 항목이 있다. 전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전국에 중립회를 개최하여 7월 25일(양력 9월 4일--필자 주)을 기하여 교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층 경건한 마음으로 전원이 참여할 것.
- ② 만일 규칙을 어겨 師道를 더럽히는 자 있으면 “□卽鳴鼓示警” 한다는 것.
- ③ 칭탁하여 피하는 자는 제명할 것.
- ④ 20세 이상 남자는 약 1개월간의 여비를 스스로 마련하여 각자 속한 包接에 따르되, 조직체계에 따라 지시사항을 承遵할 것.

25 『천도교회사초고』, 511쪽; 『천도교서』 Ⅲ, 449쪽; 『천도교창건사』, 222쪽. 이와 『시천교종역사』(152쪽)와 『동학도종역사』(413쪽)에는 박인호·홍병기·李鍾球 등이 중립회를 발기했다고 한다.

26 「東學通文(1904.7)」

27 손병희의 일본에서의 동향이나 러일전쟁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줄고, 2001 「韓末 孫秉熙의 동향과 ‘天道教團再建運動」」 참조.

- ⑤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패악을 저지르지 말 것.
- ⑥ 무기는 절대로 휴대하지 말 것.
- ⑦ 官長을 능멸하는 자는 각 포에서 是非를 가려 처리하고, 각 지방관에게 개회의 취지를 잘 이해시켜 충돌이 없도록 할 것.
- ⑧ 규범을 잘 지켜 내외국인에게 “忠直強壯한 本意”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할 것.
- ⑨ 각 포에 경찰담당자를 두어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되 이를 어기는 자는 위아래를 불문하고 나라의 법률에 따라 嚴懲할 것.
- ⑩ 개회를 준비 실행하기 위한 재정마련이 시급하므로 각 포에서 銅米와 別公을 거둬 委司를 통해 法所로 올려 보내되 각 포에서도 필요한 재정을 담당할 사람을 선정할 것.
- ⑪ 종교적인 수도를 위해 100일 기도회를 가질 것.
- ⑫ 중립회로 대표되는 초기 민회운동의 목적이 다시 강조되고 있는데, 즉 ‘명망 있고 사리에 밝은 인재로 자리를 채우며’ 궁극적으로는 ‘政黨 改革, 二千萬同胞生靈 救護, 邦本 堅固, 皇業을 弘達’ 하는 것.
- ⑬ 이것의 ‘성공실패에 따라 국가와 종교의 흥망이 달려 있으므로 철썩 같은 마음이 짐으로 서로 勸勉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것.’

『경통』의 ‘後錄’에 제시된 22개 항목의 행동강령은 두 달여 후인 1904년 10월 8일(음력 8월 29일)부터 일제히 진보회가 개회하면서 주창한 강령의 기본 틀이 되고 있다. 특히 ⑫에서 제시된 4개 항목은 진보회 뿐만 아니라 一進會 四大綱領의 그것 자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중립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각 지방의 중요 두목들이 죽거나 체포되는 상황이 계속되자 “중앙의 命으로 停會”되었다고 한다.²⁸⁾ 더욱이 손병희가 중립회를 통해 의도하는 바가 “類似甲午之舉動”임을 알게 된 이용구는 동경으로 가서 그 不可한 이유를 설명한 후 민회설립에 대한 문제를 모두 一任받았다.²⁹⁾ 서둘러 귀국한 이용구는 박인호를 중심으로 이미 설립을 추진하고 있던 주요 頭目들을 만나 그 불가함을 말하고 이에 두목들의 뜻이 일치하여 중립회 발기문은 취소되었다.³⁰⁾

중립회는 대동회와는 달리 그 과정과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1904년 초부터 전개된 제2단계 동학교단의 재건운동은 중립회 설립을 계기로 본격화되지만, 그

28 『천도교창건사』, 222~223쪽. 각지의 피해상황이 정리되어 있다.

29 『시천교종역사』, 152쪽; 『동학도종역사』, 413쪽; 金東明, 1993 「一進會と日本--「政合邦」と併合」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1, 朝鮮史研究會, 99~100쪽.

30 『시천교종역사』, 153쪽; 『동학도종역사』, 413~414쪽.

논의과정에서 중단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용구는 손병희로부터 국내 동학교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받아³¹⁾ 전국에 진보회를 설립하면서 교단조직을 장악해 갔다. 이용구는 러일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력행사를 한다면, 자칫 한국 내에 갑오년과 같은 혼란이 일어나 한국 정부와 일본을 자극하지 않을까 염려했다. 특히 이용구가 생각했던 것은 일본의 동학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었다. 1904년 8월(음력) 무렵 이용구는 송병준과 만난 자리에서 동학은 일본을 배척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³²⁾ 그러나 송병준은 동학은 한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894년 당시에도 일본에 적극 반대한 전력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용구는 동학은 일본을 반대하기 위해 일어난 적이 없으며, 한국 정부의 동학에 대한 탄압과 무능·부패에 대한 민중들의 항거였음을 주장했다. 특히 갑오년 당시에는 오히려 한국 정부가 일본을 끌어들여 동학을 진멸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하였다.³³⁾

이용구는 손병희가 당장 교인들을 동원해서 무력을 통해 무리하게 한국 정부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의 지원을 배경으로 장기적이며 점진적으로 문명개화를 이루는 것이 득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 일진회와의 결합으로 이어졌다.

손병희와 이용구는 모두 일본을 통한 문명개화를 지향하면서도 방법론적으로는 이미 서로 다른 ‘노선’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손병희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한국 정부의 동학에 대한 공인이었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일본과 러시아가 결전을 벌

31 당시까지 손병희의 이용구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이었다. 손병희는 1903년 2월 12일 「敬通」을 발표하여 조직 강화에 힘을 기울이기 위해 大頭領制를 시행하고 水淸大領 이용구 이하 海明大領 6명, 義昌大領 37명, 大接主 27명, 首接主 106명을 임명했다(『동학도종역사』, 384~391쪽. 명단이 실려 있다). 한편 『천도교백년약사』(상)에는 “수청대령 이만식(이용구), 해명대령(보류), 의창대령 이경수·박영구·나인협·문학수” 외에 대접주·수접주 명단은 없다. 수청대령은 十萬之長 九方圖畧, 해명대령은 오만지장 八方圖畧, 의창대령은 만원지장 五方圖畧의 권한을 갖는다. 당시 100명 이상에 접주, 500명 이상에 수접주, 1000명 이상에 대접주를 두게 했는데, 대접주는 나용환·이종훈·홍기억·홍기조·오용선·노석기 등 200여 명이었다(『천도교백년약사』 상, 334~338쪽). 앞서 권동진의 회고에서도 확인했듯이 1903년의 제1단계 재건운동과 1904년 2월 이래의 제2단계 재건운동 과정에서 이용구의 역할은 누구보다 큰 것이었다. 이용구는 최시형이 처형된 후 황해도·평안도·함경도 등 서북 3도의 傳道에 전념하여 교인이 약 20만에 달했는데, 1896년 이래 총 50만에 이르렀다고 한다(『시천교종역사』, 149쪽; 『동학도종역사』, 372~373쪽).

32 『시천교종역사』, 154~155쪽; 『동학도종역사』, 415~416쪽. 송병준과 이용구의 대화 내용은 1904년 10월 25일 민회탄압 중지에 대해 일진회 총대 洪肯燮·廉仲模가 참정대신 申箕善과 주고받은 대화와 동일한 맥락이다(『元韓國一進會歷史』 卷之一, 1904.10.25, 20~21쪽; 『황성신문』 1904년 10월 29일 잡보 「一進問答」).

33 위의 『시천교종역사』·『동학도종역사』와 같음.

이는 ‘기회’를 이용하여 승전국의 지위를 얻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일본에 머무르면서 망명 국사범들이나 일본 내 군부·정계 인물들과 폭넓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1903년 초(중순)부터 준비·계획했던 일련의 ‘거사’가 실행되지 못하고, 그나마 전국적으로 조직된 진보회마저도 한국 정부에 의해 탄압을 받게 되자 ‘敎政一致’의 명목 하에 일진회와의 결합을 ‘묵인’하게 된 것이다. 손병희가 진보회와 일진회의 合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진보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일진회와는 달리 타협이 필요 없는 탄압 그 자체로 일관했다는 것, 두 번째는 일진회와의 ‘同居’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정치적 일대세력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정일치’를 통한 종교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용구의 일본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지지는 손병희를 수행해서 일본에 건너간 이후 여러 차례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고,³⁴⁾ 이 과정에서 직접 선진적인 일본 문물을 경험하면서 형성되었다. 여기에 한국 정부의 ‘무능력’과 정치·경제적 혼란, 고통 받는 백성들과 여전히 자행되는 동학에 대한 탄압 등의 열악한 상황이 이용구로 하여금 일본이야말로 한국, 더 나아가서는 동양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자 신뢰할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따라서 이용구가 진보회를 주도하면서 일진회와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가능했고, 여기에 동학의 공인을 위한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손병희의 ‘묵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결국 손병희와 이용구의 갈등은 동학의 종교적인 敎義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동학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의 과정을 다르게 설정했기 때문이었다.

II. 진보회의 설립과 갑진혁신운동의 전개

1. 설립과정과 시기에 대한 재검토

진보회의 설립과정과 시기에 대한 교단측 자료는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내용을 보이고

34 이용구는 1901년부터 1904년까지 5차례 이상에 걸쳐 일본을 왕래한 것으로 확인된다. 1차는 1901년 3월경, 2차는 같은 해 10월, 3차는 1903년 10월, 4차는 1904년 2월, 5차는 같은 해 7월 경이다(이상 음력). 이 시기를 앞뒤로 일본을 왕래한 횟수나 시기는 더 많을 것이다.

있다³⁵⁾ 즉 중립회 설립이 정부의 탄압으로 여의치 않자 일본에서 손병희가 권동진·오세창·조희연 등과 상의하여 진보회 조직을 결정하고,³⁶⁾ 취지·강령·규칙 등을 만들어 이용구로 하여금 진보회의 제반 사무를 일임시켰다는 것이다. 「본교력스」에는 일본에서 직접 손병희의 지시를 받은 이용구가 단독으로 진보회의 사무를 주관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도교창건사』에서도 확인된다.³⁷⁾ 그런데 두 자료와는 달리 『천도교회사초고』와 『천도교서』에는 ‘이용구 등’이라고 하여 이용구의 실체를 두루뭉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본교력스」는 이용구가 일본에 있다가 취지·강령·규칙을 갖고 한국에 들어와서 진보회를 주관한 것임을 밝히고 있지만, 『천도교창건사』는 국내에 있던 이용구가 그 일을 주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본교력스」는 앞서 대동회·중립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진보회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다만 일자는 1904년 외에는 확인할 수 없다. 『천도교회사초고』는 7월 중립회 조직에 끝이어 “時에”라고 하였고, 『천도교창건사』는 7월의 중립회 설립과 전국 각지의 피해상황에 이어 “이때”라고 하였다. 두 기록에 따르면 중립회가 설립과정에서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되고, 무력동원을 우려한 이용구가 손병희를 설득함으로써 중지된 후 곧바로 진보회 설립이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1904년 7월 「경통」의 중립회 개회 지시일자는 7월 25일, 양력으로는 9월 4일이다. 『천도교서』에도 대동회를 중립회로 개칭한 것은 7월이라고 했으므로 양력으로는 9월이다. 따라서 진보회 설립시기가 9월이라고 한 것은 양력을 뜻한다. 즉 이들 자료에 대동회 → 중립회 → 진보회가 각각 2·3월 → 7월 → 9월이라고 한 것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각각의 설립시기를 ‘정리’하면서 양력과 음력을 혼용했기 때문이다.³⁸⁾

결국 교단측의 기록과 여러 기록을 통해 볼 때 진보회는 중립회 개회일자인 9월 4일(음력 7월 25일) 이후인 양력 9월 중순경 조직되었고, 전국적으로 개회가 이루어진 것은 10월 8일(음력 8월 29일)을 기점으로 보아야 한다.

35 「본교력스」 『천도교회월보』 1915년 3월호, 21쪽; 『천도교회사초고』, 511쪽; 『천도교서』Ⅲ, 449쪽; 『천도교창건사』, 223쪽.

36 진보회가 망명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3, 97쪽, 1904.10.31, 來電第321號 「進歩會에 관한 橫田 群山主任의 報告 件」 등 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37 권동진도 회고에서 손병희가 이용구에게 진보회에 대한 전권을 위임했음을 밝히고 있다.

38 대부분의 기록들은 모두 음력과 양력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다. 따라서 『천도교서』의 기록대로 9월이 음력이라면 진보회는 양력으로는 10월이나 11월 설립된 것이 되므로 전혀 맞지 않는다. 진보회 설립과 관련하여 9월경으로 보고 것은 양력표기를 전제로 한 것이다.

2. 성격에 대한 재검토 : 일진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보회는 동학교단이 주체가 된 민회운동의 추진단체이다. 진보회가 1904년 12월 2일 일진회와 공식 합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異名同體’로 규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학교단의 재건운동 추진단체인 진보회의 설립과정과 설립주체·성격 등은 일진회와는 분명 구별된다.

먼저 일본 공사관과 주차군사령부로 보고된 각 지역의 진보회·일진회의 동향에 대한 자료를 보자.

① 10월 22일 일본공사 林權助가 외무대신 小村壽太郎에게 보낸 전보문³⁹⁾

전국에 진보회가 설립되어 단발과 시정개선을 주장하면서 지방관의 해산명령에도 흠어지지 않고, 오히려 서울로 가서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진보회를 구성하고 있는 계층은 “중전 유생이라고 칭하는 자”, “동학당의 잔당”으로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본이나 기타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위의 보고가 어느 지방에서의 상황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진보회 개회 지시일자인 10월 8일 이후의 동향을 조사하여 보고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10월 22일 황해도 載寧의 진보회 동정을 시찰하고 작성된 보고문⁴⁰⁾

두 달 전인 양력 9월 중순경 각 지역의 책임자를 서울로 불러 앉으려는 일을 논의한 후 다시 각 지역의 책임자를 재편해서 이들로 하여금 진보회를 담당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04년 10월 중순 진보회장 李容九와 부회장 權鍾德의 이름으로 된 문서를 휴대하고 황해도 일대 회원모집 상황을 시찰하던 韓景履가 체포된 일이 있었다. 그 내용이 “座下로 本會을 選定하고 茲에 仰佈호오니 照亮호오셔 會에 出席호시물 爲要” 한다는 것으로 보아 한경이가 서울 진보회의 명으로 군 지회장을 소집하기 위해 황해도 각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체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當회원은 혹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칠고 난폭한 행동을 조심하고, 전 회원이 무기 등은 휴대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①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을 자극하지 않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진보회는 ‘일진회가 해산된 후 이

3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3, 321~322쪽, 1904.10.22, 往電第713號 「韓國進歩會의 行動에 관한件」.

40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2, 353~362쪽, 1904.11.12, 京公第58號 「黃海道方面ニ於ケル進歩會動靜視察之件」의 別紙 「復命書」. 황해도 지역에 대한 각종 公函報告 참조.

름을 바꾼 것'이라는 내용은 보고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크다. 일진회는 진보회와 합동한 후 정부의 해산명령으로 활동이 일시 중지된 적은 있지만, 그 이전에는 해산된 적이 없었다. 다만 일진회가 9월 이후 잠정적으로 그 활동을 '정지'한 적이 있다는 것은 『원한국일진회역사(元韓國一進會歷史)』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일진회는 '동양평화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전쟁을 수행하는 시기에 군사상 도움과 4대강령의 실시에 전념하기 위해 전면적인 활동은 일시적으로 '정지'했다는 것이다.⁴¹⁾ 그 시기가 진보회가 개최하는 10월 초이기 때문에 보고자가 일진회 → 진보회로 추측할 여지가 매우 큰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다음의 보고문에도 확인된다.

③ 大本營의 조사 의뢰를 받아 일진회의 현황을 조사한 내용을 한국주차군사령관 落合豐三郎이 11월 22일자로 특명전권공사 林權助에게 보고한 내용⁴²⁾

진보회는 양력 9월 하순 이용구에 의해 조직되었고, 그 주장하는 바는 일진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회는 일진회와는 분명 별개의 단체로 조직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진회가 9월 이후부터 일본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원활히 하고, 지방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일진회의 책사들이 이용구를 앞세워 조직한 것이 진보회임을 설명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진보회는 일진회와는 별도로 조직되었지만, 결국 일진회의 정략에 의한 것이고, 11월 초 현재 하나의 단체라 해도 무관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보회와 일진회를 '이명동체'로 규정하는 것은 각각의 주체와 시기를 귀납적으로 정리하여 '조사시점에서' 평가·판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는 10월 12일에서야 정식으로 진보회라는 會名이 등장하고 있다.⁴³⁾ 두 신문은 모두 이전에는 각 지역에서 회집하고 있는 '무리'들을 '동학당'·'동학여당'이거나, 이들이 일진회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도해 왔다. 물론 그 내용들은 모두 각 지역에서 상부로 보고한 것을 그대로 알리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 양상은 사뭇 다른 것이다. 즉 두 신문은 10월 12일을 기점으로 진보회의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하면서 '동학당'·'동학여당'=진보회를 공식화하고, 진보회와 일진회를 별개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일진회로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었다.⁴⁴⁾

41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一, 1904.12.12, 58쪽.

42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1, 486쪽, 1904.11.22, 韓駐參第598號 「一進會 現況에 관한 調査報告」의 別紙 「一進會의 現況에 대한 大本營 照會의 報告」 중 '1. 一進(進歩會)組織 및 目的'.

43 『황성신문』 1904년 10월 12일 잡보 「會民捉囚」; 『대한매일신보』 1904년 10월 12일 잡보 「한성동도」.

일진회측의 공식자료인 『元韓國一進會歷史』에는 10월 1일자에 처음 진보회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⁴⁵⁾ 즉 서울에서 일진회가 설립되어 4대강령 실시를 목적으로 ‘정부에 충고하고 나라를 위해 열심’한 것에 공감한 ‘지방의 유지인사’들이 지방에서 민회를 조직하여 진보회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단발한 진보회원들이 연설회를 개최하여 탐관오리를 논박하고 인민을 구호하자 지방 관리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한편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오히려 진보회를 원수와 같이 탄압하면서 정부에 “誣報匪擾”로 보고함에 따라 각 신문에도 잘못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일진회는 이어서 지방의 진보회가 일진회로 잘못 알려지면서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예견하고, 자신들은 진보회 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동학·백학을 칭하는 무리들이 일진회 통문을 앞세워 회집하여 소란을 일으키는 것’임을 광고를 통해 해명했다.⁴⁶⁾

두 개의 자료를 통해 볼 때 일진회와 진보회는 전혀 그 출발을 달리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도 명확하게 일진회와는 다른 ‘진보회’를 명시하고 있고, 앞서 강원도 금성의 경우처럼 진보회 개최지시가 잘못 전달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진보회는 동학교단의 조직체계를 기반으로 설립·개회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중앙조직이 필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진보회 지회는 중앙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짜에 360개 郡에서 개회’⁴⁷⁾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일진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정부에 대한 시정개선 요구에 주력했기 때문에 지방조직 자체가 없었다. 즉 ‘9월 이후로 停會하고 제반사무를 평의회에서 처리’⁴⁸⁾ 했다는 기록으로 보아도 지방까지 조직을 확대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일진회에서 지방의 정황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위원을 선임해서 파견하는 것은 11월초부터로 확인된다.⁴⁹⁾ 주된 목적은 각 지역의 진보회를 살펴보고 그 규모와 세력 등에 대

44 예컨대 강원도 금성에서는 동학교인 수 천 명이 모여 일진회를 자처하다가 중앙의 지시를 다시 확인하고 진보회로 개칭했다(『황성신문』 1904년 10월 20일 잡보 「會名不一」).

45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一, 1904.10.1, 16쪽.

46 『황성신문』 1904년 10월 2일 광고.

47 주 45)와 같음. 실지로 이 내용은 동학·천도교측 자료와도 일치한다. 『천도교창건사』, 228쪽에는 “360餘州의 會所를 設”이라고 하고, 『천도교서』III, 449쪽과 『천도교회사초고』, 412쪽에는 진보회 지회가 각각 “13道 各郡에 開會”, “13道 各郡에 分佈”라고 하였다.

48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一, 1904.12.12, 58쪽.

49 1904년 11월 2일 평의회에서 황해도조사위원 洪靑燮·金澤鉉, 11월 3일에는 평안남북도위원으로 尹吉炳·金士永을 각각 선정·파견했다(『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一, 1904.11.2·3, 27~28쪽). 이어서 11월 12일에는 강원도조사위원 尹甲炳, 전라남북도조사위원 金奎昌·全國煥을 각각 선정·파견했으며(『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一, 1904.11.12, 33쪽), 11월 29일에는 함경남도조사위원 梁在翼·廉昌淳을 선정·파견했다(『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一, 1904.11.29, 41쪽). 이후에는 ‘合同一進會’의 이름으로 전국에 지부가 설치되면서 관할하게 된다.

한 실체를 파악하는 것,⁵⁰⁾ 진보회에 대한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것⁵¹⁾ 등이었다. 각지에 파견한 조사위원들의 보고 중 대표적인 것은 황해도와 전주 지역에 대한 홍궁섭·김규창의 보고이다. 황해도 長連에서는 진보회원 4명이 체포되었는데 여기에는 일진회원 裴汝俊도 포함되어 있고, 松禾에서도 진보회원 6명이 체포되었는데 해주관찰사는 “단발을 夷狄의 習俗”이라고 하면서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다.⁵²⁾ 전주에서는 진보회원 尹實五·金命重이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기도 했다.⁵³⁾

그러나 정부에서 자신들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탄압을 강화하자 이러한 사실을 간행하여 전국에 알리도록 했다.⁵⁴⁾ 이어서 11월 1일 개최된 평의원회에서는 “外方進歩會의 제반 형편을 시찰하기 위”해 평의원과 사무원을 추가 선정하는 등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⁵⁵⁾ 지방 진보회에 대한 탄압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을 선임·파견하기도 했다. 이것은 곧 정부에 대한 정면 대결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이러한 전략 중의 하나가 진보회와의 결합이었다.

III. 진보회 강령을 통해 본 생활상의 변화

진보회는 1904년 양력 9월 중순경 조직되어 10월 8일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개최되었다. 그런데 강령을 제외한 취지·규칙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대한매일신보』·『황성신문』 등의 신문과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의 보고 자료를 통해 진보회 개최의 취지와 목적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은 ‘동학 차회장 나인협’ 명의의 「통고문」이 전국으로 보내지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⁵⁶⁾ 이 「통고문」은 앞서 손병희가 1904년 7월 전국 각지에

50 『대한매일신보』 1904년 11월 12일 잡보 「회원시찰」, 11월 15일 잡보 「파원상보」; 『황성신문』 1904년 11월 14일자 잡보 「派員視察」.

51 『황성신문』 1904년 11월 5일 잡보 「一進派員」.

52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一, 1904.11.17, 38쪽; 『대한매일신보』 1904년 11월 22일 잡보 「시찰 원년보」.

53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一, 1904.11.22·25, 39쪽.

54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一, 1904.10.30, 26~27쪽. 일진회가 정부를 압박하자 고종은 “進步會 民被囚者를 一併放釋” 하라는 詔勅을 내리기도 했다(『元韓國一進會歷史』 卷之一, 1904.11.16, 36~37쪽).

55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一, 1904.11.1, 27쪽.

56 『대한매일신보』 1904년 9월 14일 잡보 「동학통고문」; 『황성신문』 1904년 9월 13일자 잡보 「東學起包」.

중립회 개최를 지시한 「敬通」의 본문 내용과 다를 바 없다.

1904년 8월 초 5일(양력 9월 14일) 진보회장 이용구와 부회장 權鍾德⁵⁷⁾의 이름으로 반포된 「進步會通告文」⁵⁸⁾ 『대한매일신보』·『황성신문』에 실린 나인협 명의의 「통고문」과 같다. 다만 이 「진보회통고문」에는 ‘정부에 현의하여 정치를 개선하고, 열강의 문명을 본받아 강토를 보전하며, 인민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적극적인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1904년 9월 초 6일(양력 10월 14일) 황해도 黃州 진보회장 崔禎汝가 진보회 설립의 취지·목적을 鄕長에게 보고한 공함·보고의 내용도 거의 동일하다.⁵⁹⁾

각지에 보내진 진보회의 통문은 대체로 동일한 내용이지만, 강령·규칙은 지역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지역적으로는 평안도·황해도·함경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강원도·전라도 지역에도 일부 확인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적게는 4개, 많게는 9개 항목이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서 확인되는 강령·규칙은 대개 5~8개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도 일대에서 확인한 진보회의 主義(즉 강령)는 5개,⁶⁰⁾ 大木營의 의뢰로 한국주차군 사령부에서 조사한 11월 8일 현재의 강령 7개,⁶¹⁾ 평안도⁶²⁾·황해도⁶³⁾ 지역의 강령·규칙은 각각 8개가 확인된다.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에는 각 지역별로 보다 다양한 강령·규칙이 확인된다. 함경남도의 安邊郡은 3~5개,⁶⁴⁾ 德源郡은 7개,⁶⁵⁾ 평안남도의 三登郡⁶⁶⁾·价川郡,⁶⁷⁾ 강원도의 伊川郡⁶⁸⁾ 등은 각각 9개 항목까지 확인된다.

57 일본측 조사 자료에는 모두 권중덕이 진보회 부회장 또는 부총회장으로 등장하지만, 권중덕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5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2, 351~352쪽, 1904.10.25, 京公第54號 「平安道 江西·甌山·咸從方面ニ起リタル進步會之現況」의 附屬書 제4호 「進步會 組織通告文」.

5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2, 359~360쪽, 1904.11.12, 京公第58號 「黃海道 方面ニ於ケル進步會動靜視察之件」의 別紙 「復命書」. 황해도 황주지역 조사·보고에 대한 내용.

60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2, 202~203쪽, 報告書第38號 「一進會라 칭한 東學徒의 順川集會狀況報告 件」의 別紙 2 「議政府에서 接受한 東學黨·進會進步會 等の 所在地主義呪文等 現況」 중 ‘全羅道中東學黨所在地’.

6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1, 486쪽, 1904.11.22, 韓駐參第598號 「一進會現況에 관한 調查報告」의 別紙 「一進會의 現況에 대한 大木營 照會의 報告」 중 ‘1. 一進(進步會) 組織 及 目的’.

62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2, 352쪽, 1904.10.25, 京公第54號 「平安道 江西·甌山·咸從方面ニ起リタル進步會之現況」의 附屬書 제4호 「進步會 組織通告文」.

63 주 59)와 같음.

64 『황성신문』 1904년 11월 14일 잡보 「安邊進步」. 그런데 앞서 10월 29일자 안변군수의 보고에는 5개 항목만 나와 있다(『대한매일신보』 1904년 11월 16일 잡보 「진보회연설」).

65 『황성신문』 1904년 11월 7일 잡보 「德源進步」; 『대한매일신보』 1904년 11월 9일 잡보 「덕원진보회」.

66 『대한매일신보』 1904년 9월 14일 「동학통문」.

67 『황성신문』 1904년 10월 17일 잡보 「進步蜂起」.

이들 자료에 나타나는 강령·규칙의 항목을 종합해 보면 총 19개 항목으로 정리된다. 이 19개 항목은 다시 주제·내용 등을 묶으면 크게 5개로 분류할 수 있다.

【가】

- ① 황실을 존중할 것
- ② 독립을 보전할 것
- ③ 정치를 개선할 것
- ④ 財政을 정리할 것
- ⑤ 軍政을 減額할 것
- ⑥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

【나】

- ⑦ 會名은 진보회로 할 것
- ⑧ 8월 晦日(음력 8월 29일, 양력 10월 8일--필자 주) 일제히 개최할 것

【다】

- ⑨ 회원은 개최 후 모두 단발할 것
- ⑩ 동맹국 일본의 군사상 군용철도상에 적극 보조하여 방해가 없도록 할 것
- ⑪ 동맹국 軍에 의연금을 낼 것
- ⑫ 문명의 계발에 힘써 교육의 보급, 農商工의 융성을 계획하며, 이익권을 양여하지 말 것

【라】

- ⑬ 회원 중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官長으로 하여금 법률에 따라 조치할 것
- ⑭ 민간에 행패를 엄금하고 단속할 것
- ⑮ 개최 후 해산을 요구할 때 회의 목적을 말하고 정당한 실시를 청할 것

【마】

- ⑯ 各國의 主教를 모두 보호할 것
- ⑰ 各國 友誼 敦睦

68 『대한매일신보』 1904년 10월 14일 잡보 『진보회통문』; 『황성신문』 1904년 10월 15일 잡보 『四方東學』.

- ⑩ 중립국의 의무를 엄정하게 지키는 것
- ⑪ 깃발을 세우는 것은 萬國公法에 어긋나므로 금지하고 標準은 點燈相信할 것

이상의 19개 항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진보회·일진회의 4대 강령보다 최대 15개 항목이 더 많고 다양하다. 내용의 대강은 1904년 7월의 중립회 「경통」을 통해 이미 잘 알려진 것이고, 이 중 몇몇 항목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에도 엄격하게 지켜지던 규율과도 상통한다. 항목별 내용을 살펴보자.

【가】의 ①~⑥항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진보회·일진회의 4대강령의 내용이다.⁶⁹⁾ 특히 ⑥의 내용은 진보회 뿐만 아니라 일진회·‘합동일진회’의 시기에도 정부에 가장 적극·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즉 ‘인민의 생명·재산 보호’는 소민보호와 정치적 부패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선결과제로 보았던 것이다. 이것은 동학교단의 진보회가 일진회와 결합 후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되었고, 한 때나마 無名雜稅의 혁파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고종의 特下를 통해,⁷⁰⁾ “從此로는 國事를 ‘官民이 舍心相議’ 하도록 합의하는 일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도 했다.⁷¹⁾ 이로써 ‘합동일진회’는 정부에 의해 공식적인 활동을 보장받게 되었고, 동학교단의 입장에서 일진회와의 결합을 통해 45년 동안 노력해 온 종교적 자유를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나】의 ⑦·⑧항목은 진보회의 이름으로 1904년 8월 29일, 즉 양력 10월 8일 한꺼번에 전국적으로 개최하라는 지시사항이다.⁷²⁾

【다】의 ⑨~⑫항목은 손병희를 중심으로 동학교단이 추진한 민회설립운동의 핵심 실천사항이자 손병희가 의도한 문명개화론의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다. 먼저 ⑨의 단발에 대한 지시 내용을 보자.

손병희는 1904년 4월 일본에 건너 온 박인호·홍병기에게 ‘大義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일반 道人の 결속이 필요하고, 이들의 결속을 공고히 하려면 단발로 맹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시하고,⁷³⁾ “세계문명에 참여하는 표준이요 또한 단결을 굳게 해야 회원의 心志를 일치케 하는 것”으로 단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⁷⁴⁾ 이어서 진보회가 설립되자

69 진보회 강령은 손병희가 일본에 있으면서 권동진·오세창·조희연 등과 상의하여 작성한 것이다. 진보회·일진회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① 진보회 강령은 『천도교회사초고』, 511쪽, ② 일진회 강령은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一, 1904.8.22, 5쪽.

70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一, 1904.12.10, 55~56쪽; 『황성신문』 1904년 12월 13일 잡보 「參政覆函」, 「政府請邀」; 『대한매일신보』 1904년 12월 16일 잡보 「정부인허」.

71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一, 1904.12.24, 70쪽.

72 중앙 교단에서 지시한 개최일자는 분명 8월 29일이다. 그런데 후대의 1904년 진보회 개최에 대한 회고 등에는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8월 29일 이후로 며칠씩 차이를 두고 개최한 것으로 확인된다.

73 『천도교회사초고』, 511쪽; 『천도교서』Ⅲ, 449쪽

손병희는 다시 단발을 강조했다.

즉 단발은 ㉠ 위생에 유익한 점, ㉡ 노동에 편리한 점, ㉢ 동학교인으로 개혁의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점, ㉣ 문명된 국가의 표상이라는 점 등을 들어 그 필요성을 밝히고, 이로써 “조선인 두루마기에 모조 쓴” 일상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⁷⁵⁾ 실지로 진보회가 조직되면서 한꺼번에 적게는 16만에서 많게는 20만 명이 단발을 시행했는데,⁷⁶⁾ 이로써 “京鄕 각지에서 一齊 개회하고 斷髮黑衣로써 死를 決하여 정부개혁 國政更新을 절규” 했다고 한다⁷⁷⁾.

당시의 정치·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단발하고 흑의를 입는 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단발·흑의는 진보회=동학교인임을 스스로 드러내 정부나 일반의 직접·간접적인 탄압과 지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단발·흑의가 당대에 얼마만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는지 예를 들어보자.⁷⁸⁾

평안도 어느 지역에서 중립회 → 진보회 개회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글에는 “善이라는 家長이 동료 鶴得과 읍내에서 상투를 자른 뒤 병정에게 쫓겨 돌아와서 부인에게 종이에 쌓인 상투를 주는 광경이 나온다. 종이를 펴 본 부인은 「아! 상투! 아! 이런 변!」 하며 놀라 땅을 파 숨겨 놓았다. 상부의 지시로 개회하기로 한 8월 15일(양력 9월 24일 --필자 주) 전날 일선·학득이 읍내로 가서한 일을 보자.

아주 머리를 싸거버리고 알능날능한 양달리 양복을 한 벌식 사입고 국자보시를 사서 쓰고 그리고 김썸김에 술을 잔득 먹고 회로라는 썰연을 한 갑식 사가지고 왔다. 읍에서 나오면서 바로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을 식켜 분지나무를 비여다가 開化杖을 만들며(그때 동학군들의 분지나무개화장이란 유명하얏다) 저고리 바지에다가 썸정을 드리며 자기네 턴하가 된 듯 야단법석이였다.

74 『천도교창건사』, 222쪽.

75 「본교력스」 『천도교회월보』 1915년 3월호, 21~22쪽.

76 단발한 숫자는 「본교력스」·『천도교회사초고』·『천도교서』 III 등에는 16만, 『천도교창건사』에는 20만이라고 했다.

77 『천도교창건사』, 223쪽.

78 架子峰人, 「開會하든 때」 『新人間』 창간호(1926.4), 71~79쪽. 이하의 내용은 소설의 형식으로 1904년 개회당시를 소개한 글을 요약한 것이다. 이 글의 필자는 자신의 고향인 평북 泰川에서 1904년 9월 13일(양력 10월 21일) 개회한 당시의 상황을 소개하기도 했다(架子峰人, 「아버지 사라 첫 開會구경--甲辰 9월 이야기」 『신인간』 통권 27호(1928.8), 40~43쪽). 한편 단발·흑의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기 시작한 1920년대 후반에는 오히려 상투와 흰옷(白衣)은 비위생적·비경제적이며, 조선민족의 큰 수치라고 하였다. 즉 상투는 “나는 이마만치 완고놈이오 아는 이마만치 위생을 모르는 미개한 놈이로라”는 것이고, 흰옷은 “나는 이마마치 습관의 중놈이오 나는 이마마치 경제사상이 부족한 놈이로라.” 따라서 “상투와 흰옷은 우리 조선민족의 두 가지 북그러움”이라고 하였다(東京 朴思稷, 「상투와 흰옷은 朝鮮民族의 二大羞恥」 『신인간』 2-3호(1927.3), 56~58쪽).

㉠단발, ㉡양복, ㉢모자, ㉣회로담배, ㉤개화장, ㉥흑의로 상징되는 것이 ‘개화쟁이’의 모습이자 ‘동학당’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주위의 시선은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이들을 서양사람이니 왜놈이니 하고 쑥덕거리던 중 일선의 5촌은 일선을 죽인다고 몽둥이를 들고 한나절이나 쫓아다니고, 학득이는 장인에게 두들겨 맞아 코가 부러지기도 했다. 단발이나 의복 등을 통한 전통과의 단절은 가족이나 친족 간에도 인정하지 않는 험악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의 대립은 불가피한 것이었다.⁷⁹⁾

그러나 “골동학쟁이 일선이와 학득이는 조금도 마음을 변치 안코 모든 사람의 시비를 꺾듯으로도 안듯고 그저 밤낮 청수를 모시며 주문을 외우며 어서 창도되지만 축원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갖는 의지는 이미 전통적인 것에서 벗어나 있었고, 돈과 명예에 앞서 “조선에 주인도 자기네가 된다고 이러케 밋고 말하”는 변혁에 대한 신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入會의 표시로 단발하던 일진회조차도 초기에는 모든 회원의 의무사항은 아니었다.⁸⁰⁾ 일진회도 단발이나 의복의 변화는 이미 을미년부터 점차 조칙으로 시행되어 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⁸¹⁾ 결국 일진회는 정부의 단발·의복제도 탄압에 대응하고 “從便호 風俗으로 改良” 한다는 취지로 10월 25일 회원의 “衣笠制度을 另定호야 便天下人民으로 效則케 홀 事”를 제시하여 의무화하기 시작했다.⁸²⁾

단발이나 黑衣착용을 일본(화)에 다름이 아니라고 하여 러일전쟁기 동학교단이나 손병희 등의 일본과의 협력을 통한 문명개화노선을 ‘친일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단발령은 1895년 을미개혁 때 시행되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지만, 1902년 9월에는 勅令으로 군인·경찰의 단발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1904년 10월 초 고종은 어전회의에서 “문명 각 국은 다 단발호었스니 대한도 단발함이 가호다”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단발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지를 표명했다.⁸³⁾ 즉 단발은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의 ‘독특한’ 주장이 아니라 문명개화를 염두에 둔 대다수 지식인의 공통된

79 월남 이상재가 단발하게 된 경위도 마찬가지이다. 李商在, 1925 「내가 상투를 깎는 때: 처음 단발하던 분의 실감--斷髮했다가 또 기르고 또 斷髮」 『新女性』 3월호, 51~52쪽

80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一, 1904.9.16, 8쪽; 『대한매일신보』 1904년 9월 19일 잡보 「일진회 단발」.

81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一, 1904.10.22, 18~19쪽, 1904.10.26, 22~23쪽; 『황성신문』 1904년 10월 24일 잡보 「一進公函」, 10월 26일 광고.

82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一, 1904.10.25, 19~20쪽; 『황성신문』 1904년 10월 26일 잡보 「一進會錄」. 이후 일반인의 단발은 곧 일진회원으로 지목되면서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83 『대한매일신보』 1904년 10월 10일 잡보 「어전회의」. 1905년 11월에는 복색을 深靑色으로 통일하고, 1907년 8월 15일에는 斷髮戎裝에 관한 조칙이 내려졌으며, 8월 27일 황제즉위식에 맞춰 태황제·황제·황태자의 단발에 이어 구관복이 모두 폐지되었다.

의지였던 것이다. 단발·흑의로 상징되는 문명개화의 직접적인 모델이 일본이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당시의 정치·사회적인 현상에서는 그 조차도 대한제국이 지향해야 할 모범으로 인식될 정도였다. 그것은 손병희도 마찬가지였다. 단발의 당위성과 목적을 ㉠ 위생, ㉡ 노동의 편리, ㉢ 개혁의지의 표현, ㉣ 문명 국가의 표상으로 요약했듯이, 손병희는 자신이 준비·계획한 민회운동의 실천의지로서 단발을 내세웠던 것이다.

다만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이나 국제정세에 어두웠다는 것은 명확한 한계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러일전쟁 직후 일본은 韓日議定書의 체결로 한국에 대한 보호국화를 공식화한 상태였지만,⁸⁴⁾ 대한제국의 관료들이나 지식인층의 문명개화에 대한 바램은 오히려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굳어지면서 친러정권의 주요 관료들은 일본의 힘을 직접 체험하게 되고, 이를 배경으로 재빨리 친일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⁸⁵⁾

다음으로 ㉠의 일본에 대한 군사적 원조의 내용을 보자. 진보회는 일진회와 공식합동하기 전부터 철도부설이나 군수물자에 회원들을 無償으로 동원하고 있었다.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시기는 모두 11월 중순이다.

『대한매일신보』에는 평남 安州,⁸⁶⁾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는 평남 平壤·津南浦와 황해도 黃州 일대⁸⁷⁾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두 종류의 자료를 통해 진보회원들은 러일전쟁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평남과 황해도 일대에서 자원하여 노력동원에 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해당지회의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라 동학 상층부에서 지시한 행동강령에 따른 것이고, 지역적으로는 군용철도부설이 이루어지고 있던 곳에 집중되고 있다. 일진회의 경우 평안도·황해도뿐만이 아니라 함경도 일대의 전투지역에 대한 물자수송에도 적지 않은 인원이 동원되고 있지만, 함경도 일대에 대한 진보회의 노력동원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진보회원들의 노동력 제공은 거의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약속’이 전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에 비해 각 병참부에서는 일단 무임금보다는 노동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불한다는 방침으로 이들의 노동력을 수용했다. 안주에서는 100여 명이 무임노동을 지원했다. 평양에서는 양측의 협상을 통해 100여 명이 일당 60전의 임금을 받기로 했으므로 하루 임금

84 『황성신문』 1904년 10월 1일 別報. 이 내용은 일본 『外交時報』 제82호에 실린 법학박사 中村 進午가 ‘한국의 장래’라는 제목으로 투고한 글을 소개한 것이다.

85 서영희, 1997 「러일전쟁기 대한제국 집권세력의 시국대응」 『역사와현실』 25, 한국역사연구회, 217쪽.

86 『대한매일신보』 1904년 11월 12일 「자원출력」.

8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1, 484쪽, 1904.11.15, 韓駐參第588號 「進歩會員의 鐵道工事, 郡衙, 公共經營事業에 無價出役者 對策에 關한 件」의 別紙 「報告」. 이것은 평양 吉岡 헌병대위의 보고를 헌병대장이 정리하여 군사령관에 보낸 것이다.

은 최소 총 60원, 1개월(25일)이면 약 1500원에 해당하는 적지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임금은 한 번도 받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진남포에서는 40~50명의 宿料만 지불하고 있으며, 황주에서는 200여 명의 임금을 모아 恤兵部나 일어학교 설립에 현금하는 것으로 협상하고 출역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주차군참모장 落合豊三郎은 위의 보고문을 종합하여 특명전권공사 林權助에게 보낸 글에서, 반드시 노역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설혹 출병부나 공공사업에 현금하려는 뜻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일단 임금은 지불하도록 각 부대장에게 지시해 두었음을 강조했다.

러일전쟁 중의 한국인에 대한 노동력 동원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강제한 사항 중의 하나이고, 韓日議定書에 의거한 것이기도 했다. 일본 군부측에서는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민간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고자 했지만, 각 지역에서는 무리한 노동력 동원요구와 토지·가옥의 강제 수용 등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면서 1904년 9월 安岳·谷山 등에서는 저항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⁸⁸⁾ 일반 민들에 대한 노동력 ‘징발’은 진보회·일진회의 조직적이고 자발적인 노동력 ‘제공’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특히 전자의 경우 한국 정부 내 관료나 각 지역 수령들의 對日인식에 따라 다른 대응양식도 드러나고 있으므로 후자와의 상황은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한편 일진회의 일본군에 대한 지원은 이미 1904년 10월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시기·지역·노동력의 종류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1905년 6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이른바 ‘北進輸送隊’의 이름으로 수행된 일본군 물자보급과 수송이다.⁸⁹⁾ ‘북진수송대’는 6월 10일 일진회 총회장 이용구와 평의장 송병준이 일본주차군사령관 長谷川好道를 만나 “비밀조약으로 북진군사상 幫助를 계획을 확정” 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다.⁹⁰⁾ 6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함경도일대에서 赴役한 회원과 경비, 부상자와 사망자는 총 49명(壓死 1, 水死 3, 病死 4, 車傷 41)이다.⁹¹⁾

다른 하나는 1904년 10월부터 1905년 9월까지 평안도·황해도 일대의 京義線 臨時軍用鐵道 建築에 동원된 일진회원 수와 經費에 대한 보고이다.⁹²⁾

88 손철배, 「러일전쟁기 일본군의 役夫 동원에 대한 한국인의 대응」, 한국역사연구회 근대1분과 2004년 5월 월례발표회 발표문.

89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二 附錄 上, 1905.6.10~12.26, 123~161쪽 참조.

90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二 附錄 上, 1905.6.10, 123쪽.

91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二 附錄 上, 1905.6.10~10.20, 161~165쪽. ▲ 부역회원: 11만 4500명 ▲ 각 항목 경비 합계: 19만 7760원 ▲ 雇金領受額: 6만 3530원 ▲ 일진회 지불액: 13만 4230원.

92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二 附錄 下, 167~174쪽 참조. 응역한 수는 평남 6만 4700명, 평북 7만 2900명, 황해도 1만 1514명, 총 14만 9114명이다.

⑪은 러일전쟁 직후 손병희가 일본에 군자금 1만 원을 헌납하고, 적십자사에 3000원을 기부한 것이나 위의 댓가 없는 노동력 제공, 임금에 대한 헌금 등과 직접 관련이 있고, ⑫는 【가】의 기본 강령이나 손병희가 추구한 문명개화노선의 전반적인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의 ⑬⑭⑮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에도 농민군의 規律로 적용된 바 있는 사항이고,⁹³⁾ 중립회 개회를 지시한 「경통」의 ‘後記’, 즉 행동강령을 통해 보다 세분화·구체화된 내용이다. ‘동학농민운동’ 당시의 상황이나 적대적 대상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동학교인이 주체가 된 이 시기의 민회운동은 ‘類似甲午之舉動’을 방불케 하는 것으로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규모이니 만큼 일사분란한 행동규율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집단적·조직적으로 시정개혁을 위한 정당한 요구, 즉 ‘자발적·자율적 의식’의 발현을 찾아볼 수 있다.

진보회·일진회, 그리고 이후 ‘합동일진회’의 적극적인 民瘼 恤과 요구가 계속될수록 무력을 동원하여 탄압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반면 오랫동안 관리들로부터 수탈을 당해 온 인민들의 상당 수는 이들의 개혁요구에 호응하기도 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진보회나 일진회의 물적 지원을 통해 立身하고자 하는 부류도 있었고, 海西·湖南 등지에서는 일진회원을 칭하면서 온갖 행패를 부리는 자들도 있었다.⁹⁴⁾ 이에 대해 ‘합동일진회’는 관리들의 탐학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법률을 위반하지 말고 정당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⁹⁵⁾ 민회가 존립하는 데에는 대중의 신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끝으로 【마】의 ⑯⑰⑱의 항목은 모두 외국과의 종교·외교·정치적 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⁹⁶⁾ 1902년의 「三戰論」이나 중립회 시기의 「경통」을 통해 제시된 내용에 모두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다. 1904년 4월 손병희는 李仁淑을 통해 의정대신 尹容善과 법무대신 李允用에게 “時局에 善處할 일과 稅政을 革新할 일을 痛論”하는 글을 보낸 바 있다. 손병희는 의정대신 앞으로 보낸 글에서 財政·道政·言政, 즉 경제개혁, 사상·종교의 확립, 외교·언론의 三政을 설명하고, 동학을 기반으로 한 문명개화론의 실현을 주장했다.⁹⁷⁾ 또한 법무대신 앞으로 보낸 글에서 러일전쟁은 결국 일본과 러시아

93 농민군이 1894년 3~월에 발표한 「四大名義」·「4개 약속」·「농민군 12개조 기율」 등에 잘 나타나 있다(鄭診相, 1999 『제1차 농민전쟁』 『한국사』 39, 국사편찬위원회, 330~332쪽).

94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一, 1904.12.8, 51쪽.

95 『원한국일진회역사』 卷之一, 1904.12.9, 53쪽. 이것도 역시 위의 ⑬⑭⑮와 동일한 취지이다.

96 손병희가 정부로 보낸 내용의 핵심은 “設國會 立宗教 理財政 改善政治 勉游學” 등의 5개 조목이었다(『황성신문』 1904년 7월 29일 논설 「戒東學之徒」). 즉 종교적으로는 동학의 국교화, 정치적으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체제의 개혁, 경제적으로는 국가(정부) 경제의 혁신, 그리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인재의 발굴·등용·양성이 핵심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의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쟁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개선하고, 독립의 힘을 길러 국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민회를 설립하여 서로 의논한 후 정부와 교섭하면 民力으로 이들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⁹⁷⁾ 즉 당사자인 한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전쟁에서 중립국의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이후의 결과를 선점할 수 있고, 국제법에 따라 각 국의 종교를 보호함으로써 열강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그 의도를 이해시키고 권리를 획득하자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IV. 진보회 지방지회의 구성

진보회는 동학교단의 특수한 포교조직을 바탕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지방지회도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의 진보회 개최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주요하게는 『대한매일신보』나 『황성신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지역에서 상부로 보고한 보고문 등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크게 참고가 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포나 현황을 보는 데는 한계가 많다. 다음으로 동학·천도교측 기록인 『천도교창건사』와 『천도교백년약사』(상)에는 各道에서 개최한 주도자와 활동인물을 수록하고 있어 각 지역의 개최현황과 ‘두목’들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교단측에서 후대에 각각 정리·작성한 자료인데다가 해당 道 단위의 인물자체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단위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역시 한계가 있다.

진보회의 전국적인 동향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大本營의 의뢰를 받아 한국주차군사령부에서 조사한 ‘진보회 役員 및 各郡 人원 수’에 대한 내용이다. 이 자료에는 1904년 11월 8일 현재 전국 13도 중 경북과 함북을 제외한 11개 도 관하 각 군 회장·부회장의 명단과 신분, 평의원 수와 신분, 각 지회의 총 인원 등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지회와 회원의 분포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97 의정대신에게 보낸 글은 『천도교창건사』, 212~220쪽; 『천도교백년약사』(상), 340~343쪽; 『의암손병희선생전기』, 183~188쪽 참조. 그런데 이 글은 『나라사랑』 7(외솔회, 1972), 130~135쪽에 「上疏文」으로, 『천도교회사초고』, 504~510쪽에는 「彈劾文」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내용은 1902년 3월 道戰·財戰·言戰의 「三戰論」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의암손병희선생전기』, 171~180쪽에 「삼전론」의 원문·번역문이 수록되어 있다.

98 법무대신 앞으로 보낸 글은 『천도교백년약사』(상), 343~345쪽에는 原文이, 『의암손병희선생전기』, 188~192쪽에는 번역문이 수록되어 있다. 의정대신·법무대신에게 보낸 글은 모두 1904년 음력 3월 15일(양력 4월 30일)에 보내진 것으로 되어 있다.

<표 1> 진보회 지방지회 및 회원 분포

道	郡	회장 부회장 장 수	회장·부회장 신분			평의원 원수	평의원 신분				회원수	계	회원 비율 (%)
			士人	前 官吏	前 進士		士人	農人	商人	기타			
경기도	8	16	11	3	2	67	22	29	16	0	4,980	4,980	4.2
강원도	7	14	14	0	0	63	24	25	14	0	2,960	2,960	2.5
황해도	13	26	25	1	0	124	48	49	24	前官吏 3	6,255	6,255	5.3
전라북도	10	20	14	5	1	53	10	31	10	前官吏 2	22,180	22,99	18.8
전라남도	2	4	4	0	0	12	4	4	4	0	810		0.7
경상남도	1	2	2	0	0	10	4	4	1	前官吏 1	1,400	1,400	1.2
충청남도	1	2	2	0	0	10	3	5	2	0	200	500	0.2
충청북도	1	2	2	0	0	5	1	3	1	0	300		0.3
함경남도	7	14	14	0	0	60	25	23	9	前官吏 3	9,240	9,240	7.9
평안북도	12	24	24	0	0	121	48	56	17	0	19,560	69,410	16.6
평안남도	18	36	36	0	0	195	68	84	41	前官吏 2	49,850		42.3
계	80	160	148	9	3	720	257	313	139	11	117,735	100	

출전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1, 489~502쪽, 1904.11.22, 韓駐參第598號 「一進會現況에 관한 調査報告」 중 附屬書 '1. 一進會 및 進歩會 役員' · '2. 進歩會 各郡 人員數表'

비고 : 이 <표>의 구성은 邢文泰, 1977 「1904年代 東學運動에 대한 一考察 -- 一進會進歩會를 中心하여--」, 『史學論志』 4·5合輯, 한양대학교 사학과, 88~91쪽의 <표 2·3>을 참조하였다.

전국 총 회원은 11만 7,735명이고,⁹⁹⁾ 役員은 총 880명이다. 전체 역원 중 前 官吏가 20명, 前 進士가 3명, 士人은 405명, 農人은 313명, 商人은 139명 등이다.¹⁰⁰⁾

전국 11개 도내 군단위 지회는 총 80개이다. 이중 평안도가 평북 12개, 평남 18개로 총 30개 군, 전체 37.5%를 차지한다. 이어서 전라도가 전북 10개, 전남 2개, 총 12개 군으로 전체 15%, 단일지역으로는 황해도가 13개 군, 전체 16.2%로 오히려 전라도보다 지회설립에서는 앞선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8개 군, 전체 10%, 함경남도·강원도가 각각 7개 군, 전체 8.8%씩이다. 도별 분포만 본다면 평안도·황해도·함남 등 서북지역은 50

99 1903년 2월 현재 동학의 조직체계는 100명 이상은 接主, 500명 이상은 首接主, 1000명 이상은 大接主로 구성되었고, 이 중 대접주가 200여 명이라고 했다(『天道敎百年略史』 (上), 337~338쪽). 이것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계산해도 대접주 관할 교인 수만 대략 20만 이상으로 헤아릴 수 있다. 실지로는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한편 당시 지방진위대에서 군부로 보고한 진보회원은 5만여 명이었다(『황성신문』 1904년 11월 11일 잡보 「會民査報」; 『대한매일신보』 1904년 11월 12일 잡보 「회민수효」).

100 그런데 자료상으로는 개별 통계와 총계가 서로 어긋난다. 즉 총계는 役員 883명 중 前官吏 22명, 前進士 4명, 士人 403명, 農人 316명, 商人 138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개로, 전체 군단위 지회의 62.5%를 차지할만큼 북한지역이 더 활성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분적인 분포는 회장·부회장의 경우와 평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회장·부회장은 전체 160명이고, 신분으로는 士人·전 관리·전 진사 등 해당 지역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진사 출신들은 대체로 전통적인 양반계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 160명 중 148명을 차지하는 ‘士人’의 신분적 특성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일본측에서 조사한 자료들에서 사용되는 이 ‘士人’이라는 부류는 특정한 신분·계급을 지칭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에서 경제력을 토대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부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도부의 구성이 전통적인 신분 계급이나 출신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자체는 눈에 띄지만 회장·부회장은 여전히 ‘사회적 영향력’이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평의원의 신분 분포를 보면 전체 720명 중 농민 313명, 士人 257명, 상인 139명, 전직 관리 11명으로 각각 43.4%·35.7%·19.3%·1.5%로 분포되어 있다. 회장·부회장과는 달리 농민·상인이 전체 평의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학이 당초 수용되고 포교된 지역이 농촌이나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각 지역의 평의장의 이름이나 신분 등이 더 확인된다면 교세회복에 따른 신분별 분포의 변화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회원 분포는 평남·평북이 전체 58.9%로 다른 지역을 다 합친 것보다 많고, 그 다음으로 전북이 18.8%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평남—전북—평북이고, 이어서 함북·황해도·경기도·강원도 등의 순서이다. 특히 평안도·함경도·황해도의 3개 지역이 전체 회원의 72.1%를 차지할 정도로 서북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도내의 군 지회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서북지역은 80개 중 50개인 62.5%를 차지함으로써, 전북을 제외한 남한지역의 9.1%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동학의 창도이래 주요 인적·물적기반이던 삼남일대의 포교상황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거치면서 크게 위축되었다. 1904년 11월 현재 남한지역에는 전라북도 만이 나름대로 지회나 회원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전남·경남·충청도 등지의 활동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평안도·황해도·함경도의 서북지역 일대는 전체 지회와 회원 수에서도 남한지역을 압도하고 있다. 이 지역의 교세확장은 ‘동학농민운동’ 이후 최시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단재건활동의 핵심 지역이었고, 1896년 말에서 1897년 초에 이르면 평안도·황해도 지방의 교세는 크게 증가되었다.¹⁰¹⁾ 특히 최시형 사후 단일체제를 확립한 손병희를 중심으로 한 동학교단이 평안도를 비롯한 황해도·함경도 지역

101 朴孟洙, 1995 『崔時亨 研究--主要活動과 思想을 中心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45~250쪽.

을 새로운 인적·물적 기반으로 삼아 교세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교단재건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¹⁰²⁾

한편 1904년 9월경 전국 360여 개 지역에서 개최한 진보회 주요 두목 수는 <표 2>와 같다.

<표 2> 각 도의 개회 총 인원 수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황해도	함경도	경상도	계
113	147	36	35	73	111	74	156	59	804

출전 : 『天道敎創建史』, 223~228쪽; 『天道敎百年略史』(上), 348~351쪽.

비고 : 두 자료에는 각 도별로 개최한 주요 두령과 활동인물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표 2>도 <표 1>과 마찬가지로 서북지역인 평안도·황해도·함경도가 490명, 60.9%로, 삼남지역인 전라도·충청도·경상도의 143명, 17.7%의 3배를 넘는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경기도·강원도 등을 합친 전체 남한지역의 314명, 39%를 훨씬 압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평양의 경우는 “羅龍煥·林禮煥·洪基兆·林正淳·洪基億 등이 2만여 명의 도중을 거느리고 개회”할 정도였다.¹⁰³⁾ 또한 단일 도 단위 인원으로는 함경도가 평안도 다음으로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표 1>에서는 함경남도의 경우 지회가 7개, 평의원이 60명, 일반회원 수가 1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교세가 확장되어 있었다.

맺음말

동학교단의 민회설립을 통한 재건운동은 종교로서의 동학에 대한 공인과 정치세력화 시도를 목적으로 전개되었다. 시기적으로는 1903년 초(중순)부터 준비·계획되었지만 국내외적인 조건의 미비로 실패하고, 대동회 → 중립회 → 진보회 등의 민회로 상징되는 민회운동이 1904년 초부터 본격화되었다.

海月 崔時亨 순도 후 교권을 확립한 義菴 孫秉熙는 5년여에 걸친 일본 ‘외유’ 기간 중

102 당시 평안도 지역의 교세 신장과 활동에 대해서는 조규태, 앞의 논문에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103 『천도교창건사』, 223쪽. 또한 이들이 개최하는 과정에서 金淵蕃·崔周億·金斗鉉·韓明倫·朴官春·高夢良 등이 警廳에 체포되었다가 풀려나기도 했다(『천도교서』Ⅲ, 449쪽).

대한제국 정부의 총체적 변혁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1904년을 전후로 손병희를 중심으로 전개된 교단재건운동은 동학교단의 3대 혁신운동 중 하나인 ‘甲辰革新運動’을 일컫는다. 전개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는 러일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03년 초(중순)부터 손병희를 비롯한 교단 상층부를 중심으로 준비·계획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행될 가능성이 적었다. 교단 내적으로는 국내의 교인들을 동원할 실력행사가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일본 정부에서 선불리 무력을 동원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군부 내 강경세력들은 동학교단이나 망명객들이 한국 내 親露세력을 제거하려는 뜻에 동조하여 친일정권을 세우는 계획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추정해볼 수 있다.

제2단계는 대동회 → 중립회 → 진보회로 이어지는 민회설립을 통한 재건운동이다. 즉 러시아와 일본의 ‘공식적인 전쟁’의 상황을 이용하여 民會를 조직하여 일본을 군사적으로 원조함으로써 전쟁 후의 정치적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의도였다. 이것은 동학을 기반으로 한 문명개화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단발·흑의 시행과 일본군에 대한 노동력 제공 등은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甲辰革新運動의 실질적인 추진은 進步會를 통해 전개되었다. 진보회는 손병희가 추구한 宗教적인 힘을 통한 政治의 변혁, 즉 ‘教政一致’의 실현체이기도 했다. 진보회는 종교적인 의미로써 뿐만 아니라 당대의 사회적·정치적 현상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재료’를 제공한다. 즉 당시까지만 해도 금기시 되고 있던 단발·흑의를 통한 ‘근대적 생활’의 적극적인 표현과 집단적·조직적인 소통을 통한 ‘근대적 의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2단계의 재건운동과 관련하여 민회의 설립시기·성격 등에 대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1904년 2·3월 경 동학교단 내에서 논의된 민회가 大同會로 ‘조직’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한 정황은 있었지만 대동회가 실체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민회설립은 7월 말 中立會를 통해 이루어졌다. 대동회·중립회로 상징되는 민회가 정부의 탄압을 받으면서 진보회가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다만 대동회·중립회는 모두 음력으로 표기된 반면 進步會는 양력 9월로 표기되어 있다. 이것은 교단측에서 敎史를 ‘정리’하면서 양력·음력을 혼용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진보회는 설립 논의나 과정·목적이 一進會와는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점이다. 필자는 동학·천도교단측의 敎史자료, 일본측의 초기 보고자료, 일진회 관계자료, 신문자료 등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했다. 이를 통해 두 단체가 1904년 12월 2일 결합함으

로써 한 때나마 天道敎와의 同居를 유지하게 되지만 당초의 과정은 전혀 다르게 조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異名同體라는 것은 각각의 성격이나 과정을 무시하고 1904년 10월 말이나 11월 초이래의 상황을 귀납적으로 결론지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진보회는 동학교단이 보유한 조직체계를 기반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중앙조직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대동회나 중립회는 중앙단위에서 논의가 되었고, 특히 중립회는 지방에서 개회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중지되었다. 반면에 중립회 중지이후 李容九를 중심으로 곧바로 진보회가 재건되면서 8월 29일(양력 10월 8일)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일제히 개회되었다. 그러나 진보회의 지방지회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매우 한정적이다. 동학자체가 정부의 탄압을 받으면서 비밀리에 포교되었기 때문에 조직자체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1904년 11월 초 현재 일본측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고, 특히 평안도·함경도·황해도의 서북지역으로 교세가 확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러일전쟁이 경과하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제국주의적인 침탈은 한층 노골화되었지만, 오히려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친일정권이 성립되었다. 손병희 또한 일본 '외유' 중 일본만이 한국을 둘러싼 동양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손병희의 신임을 받고 진보회를 주도하던 이용구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손병희와 이용구는 일본을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동학이라는 종교를 동원하고, 어떤 방법·시기까지 일본과 협력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분명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다. 손병희는 1903년 이래의 起義가 실패하고, 진보회마저 정부의 일방적인 탄압을 받으면서 '교정일치'의 명목 하에 일진회와의 결합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끝>

甲辰革新運動을 통해 본 복식의 변화

金 容 文(原州大學)

I. 서언

복식은 시대에 따라 변천속도가 다르다. 엄격히 제한된 사회체제에서는 변천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완만하고 개방된 사회에서는 변천속도가 빨라지며 사회적 변동이나 사회체제의 개혁기 있을 때는 복식의 변천이 급격히 일어난다.

개화기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시기적으로는 1870년대에서 1910년까지 약 40년간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전체 역사인 오천년 중에서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통사회가 해체되어 가면서 전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구파와 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개화파가 서로 심한 반목, 대립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여 사회개혁이 일어났으며, 특히 서양복식의 도입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개화기에 폐쇄된 사회가 개방된 사회와 문화접촉을 함으로써 고정된 민족복식이 변화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복식의 변화가 빨리 일어나며 변화의 폭도 크고 다양했다.¹⁾

개화에 대하여 처음으로 개념을 규정한 유길준은 그의 저서 『서유견문』에서 개화란 인간의 千事萬物이 至善極美의 경역에 이르는 것을 일컫는다고 하여 인간이 보다 나은 상태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²⁾

개화사상은 실학사상, 천주교 및 동학, 기독교의 전래, 외래문화의 접촉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전파되었다.

독립신문의 논설을 보면 개화란 아무 것도 모르는 소견이 열려 이치를 가지고 일을 생각하여 실상으로 만사를 행하자는 뜻이다.³⁾ 즉 개화란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서 실이

1) 김지희(1990), 「개화기 남자복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삼지전문대학 논문집, 제20집, p.1.

2) 李完宰(1985), 「開化思想小考」, 『한국학논집』, 5, 한양대학교, pp.67~68.

3) 독립신문 1896. 6. 30.

없는 것을 배제하고 사물의 실상에 따라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황성신문은 논설을 통하여 개화를 ‘개물성무’와 ‘화민성속’의 두 말을 합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⁴⁾ 개물성무란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는 바를 개발하고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고, 화민성속이란 백성을 교화하여 아름다운 풍속을 만든다는 뜻이다. 따라서 개화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국민을 교화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II. 의복의 개혁운동

1. 갑신의제개혁

1876년 開港 이후 남자복식의 첫 번째 변천은 1884년(고종 21년) 5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갑신의제개혁이다. 그 제령을 살펴보면 “조복, 제복은 신성의 유제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으나 관복은 오로지 黑團領으로 하는 것은 곧 古制이니 일이 매우 간단하고 편리하다. 堂上官 時服(입시할 때나 공무를 볼 때에 벼슬아치들이 입던 옷으로 단령에 흉배가 없음)인 흉단령은 『大典通編』과 『原典』의 예에 따라 입지 말고, 지금부터 모든 조정의 관원들은 항상 흑단령을 입되 대소의 朝儀에 進規 할 때와 궐내의 公故(벼슬아치가 조회, 진가, 거동 등 궁중의 행사에 참여하는 일)가 있을 때에는 胸背를 달아서 문무와 품계의 구별을 삼으라. 단령의 제도를 盤領窄袖(좁은 소매에 둥근 깃을 단 옷)로 하는 것도 또한 한결같이 국초의 제양을 따르라.”⁵⁾고 하여 단령의 색을 붉은색에서 검정색으로, 또한 좁은 소매로 간소화하며 흉배로 문무의 품계 구분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예제에서는 私服變制節目 별단에서 이 때의 私服의 변천을 보면 “조복, 제복, 상복과 같은 예복은 모두 옛 성인의 遺制로써 변경할 수 없는 것들이고 사복은 그때그때 개량하여 만들어 될 수 있으면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니 이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복으로서 道袍, 直領, 褙衣, 中衣 같은 것은 모두 소매가 넓어서 행동에 불편하고 옛 것을 조사해 보아도 또한 서로 먼 것이니 지금부터 약간 변통하여 窄袖衣,

4) 황성신문 1898. 9. 24.

5) 『고종실록』, 고종 21년 윤 5월 24일

戰服, 絲帶를 착용하여 간편하게 하는 것으로 定式을 삼도록 該曹에 명하여 절목을 만들어 들이게 하라.”고 하여 도포, 직령, 창의, 중의 등과 같은 넓은 소매의 옷은 불편하므로 좁은 소매의 옷을 착용하라고 하였다.

조선왕조시대의 포제에는 관복인 단령포와 사복인 직령포가 있었다. 유교를 숭상하고 예의와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한 당시의 조선왕조사회에서는 사대부로부터 하서인에 이르기까지 포를 착용함을 예로 여겼고, 사대부는 집안에서도 포를 착용하고 있었다. 평상시에 착용하는 편복포는 직령으로 무와 트임의 유무, 트임의 위치 및 소매의 형태 등에 따라 다른 명칭의 포가 여러 종류 있었다. 도포, 직령포, 창의, 중의 등의 넓은 소매의 옷은 행동하기에 불편하므로 좁은 소매인 주의로 변하게 되었다.

이상의 갑신의제개혁을 정리해 보면 흥단령을 검은 물을 들여 입고 소매를 좁게 고쳐 입으라는 것이다.⁶⁾ 실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평등의식을 반영함을 알 수 있고 광수를 축소하여 실제적인 편의를 도모하며 간소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갑신의제개혁은 개화의 물결에 의한 첫 시도였던 만큼 오랜 인습과 옛 전통을 고수하던 당시의 국민들에게는 호소력을 가질 수 없어 반대 상소가 울려 지는 등 그 실행은 보지 못하였다.

2. 갑오경장의 의복간소화

1894년의 갑오경장에서 중요한 사회적인 개혁은 우선 신분제도의 철폐, 노비제의 폐지, 천민해방 등 봉건적 신분제가 법제적으로 철폐되었으며, 과부의 재가허용, 조혼금지, 죄인 처벌에 있어서 고문이나 연좌법을 폐지한 것, 관인은 고등관을 지낸 자라도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자유로이 상업을 경영할 수 있게 한 것 등 사회적 구습이 혁파된 것이다. 복식에 있어서는 의복제도의 간소화가 있다. 특히 단발령에 대하여는 “목을 자를 수는 있으나 머리털을 자를 수는 없다”는 강경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다.

1894년(고종 31년) 6월28일 군국기무처에서 조관의 의제를 의결 공포하였으며, 또 다시 7월 12일 군국기무처에서 議案과 銓考國條例·選舉條例를 올렸는데, 양반·서민 모두 착수인 周衣를 착용하게 하였으며 의안은 다음과 같다.

6) 『고종실록』, 권21, 고종21년 윤 5월 25일. “장차 새로 만든 관복을 시행한다 하여 전에 입던 관복을 고쳐 반령으로 만든다면 매우 구차할 듯하니 전에 입던 관복은 다만 소매를 좁게 줄여 만들어서 입고, 흥단령은 검은 물을 들여서 입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새로 관복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새로 제정한 양식에 따라 만들어 무늬의 유무에는 구애받지 말라.”

“朝官의 衣制는, 陞見할 때의 의복은 紗帽에 章服(盤領窄袖)을 입고 品帶를 띠고 靴子를 신으며, 燕居시의 사복은 漆笠에 答호를 입고 絲帶를 띠고, 庶人의 衣制는 漆笠에 周衣를 입고, 사대를 띠고, 武人의 의제는 근래의 예를 따라 장수와 군졸을 다르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니, 아울러 모두 允許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⁷⁾

이를 보면 관복에 있어 착수의 착용은 잘 시행되지 않았던 듯 다시 착수를 이용토록 했으며, 사복에 있어서는 이제 주의는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단지 여기에 答호를 덧입어 士庶人과 구별하고 있다. 착수인 주의를 착용토록 한 것과 사서인이 모두 주의를 착용토록 한 것은 개화사상인 평등사상, 문벌의 타파, 계급의식의 타파 등이 신분과 문벌을 중요시 해 왔던 관료계급의 복식에까지도 영향을 준 것이며, 이 문호개방이 후 밀려오는 양복과 이를 받아들여려는 시대적 요청, 그리고 반상의 구별이 점점 사라져 가는 시대상의 변화가 복식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894년 12월에는 관복이 더욱 간소화되어 조선의 대례복은 흑단령으로 하고 진궁시 통상 예복은 흑색주의와 答호에 사모, 화자를 착용하도록 했다. 즉 주의를 사복이 아닌 관복에도 착용하게 된 것으로 이는 10년 전 갑신의회개혁시 사복에 주의를 착용토록 했을 때 상당한 반대를 했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혁신적인 개혁이었지만, 개화사상의 확대에 의복개혁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행해질 수 있었다. 또한 양반과 서민이 공통으로 주의를 입도록 함으로서 옷으로 계급의 격차를 뚜렷이 구분하였던 조선왕조의 엄격한 신분구별 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화사상인 문벌타파와 평등의식이 복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시대사의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895년(고종 32년) 3월 을미개혁에서는 “公私禮服 중 答호는 입지 말고 진궁시에만 帽, 靴, 絲帶를 사용하고 周衣는 관민이 다같이 검은색으로 하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의제상으로라도 관민을 구별하지 않음이고, 둘째는 편의를 위해서라고 했다. 같은 해 4월 9일에는 칙령으로 육군복장규칙이 반포됨으로서 서구식 군복이 도입되었다. 8월 10일에는 문관의 복장식이 반포되어 大禮服과 小禮服 그리고 通常服이 결정되었다. 즉 이것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개화이후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면서도 관복 서구화의 발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朝服과 祭服은 전과 같이 한다. 2. 大禮服은 黑團領·紗帽·品帶·靴子로 한다. 이는 거동할 때와 慶節과 문안할 때 및 禮接할 때에 입는다. 3. 小禮服은 黑團領·

7) 『고종실록』, 고종 31년 윤 6월 28일

窄袖袍·紗帽·束帶·靴子로 하되, 大禮服을 입을 때에도 (경우에 따라) 간혹 사용하나, 無時로 進見할 때에 입는다. 4. 通常服色은 편리한 대로하되 周衣·搭護·絲帶로 하고, 内外의 관원이 仕進(벼슬아치가 규정된 시간에 출근하는 것)할 때에 입는 것은 무관하나 進見할 때에는 입지 못한다. 士庶의 복색도 편리한 대로하되 廣袖는 하지 말고, 禮服이외에는 되도록 힘써 儉約하게 하라.”

고 기록되어 있다.⁸⁾

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은 공복이라는 말 대신 대례복, 소례복으로 개칭된 것과 소매너비로 대례복과 소례복을 구별한다는 점이며, 통상예복에 담호를 다시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周衣를 관복의 통상복으로 입는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고 편리함과 검소함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시대상의 변천인 개화의 영향이라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지 고집하던 권위주의의 관복에 편리함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고 1884년 착수포에 대한 반발이 심하였던 것에 비해 주의의 수용은 옷의 실용화라는 측면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1895년(고종 32년) 11월 15일에는 태양력을 사용하고 年號를 建陽이라 하였다. 의복제도에 있어서는 網巾을 폐지하고, 외국제를 채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다.⁹⁾ 그리하여 단발령과 함께 양복을 착용하게 되었다.

3. 東學의 개화혁신운동

우리나라 근대적 여성관을 대동시킨 계기인 동학사상은 몰락한 양반의 서자 출신인 최제우에 의해 1860년부터 포교되기 시작한 민족적 종교사상이었다. 동학사상은 유불선의 합일이며 西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의 고유신앙이다. 민족주의적인 종교인 동학에 남녀평등사상이 자생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교주들의 사상에서 발견된다. 비록 유학의 윤리관을 그대로 답습한 점도 있으나 여성에 대한 존중과 그 실천을 강조하였다. 즉 모든 사람은 한 울이라 하며 여성도 똑같은 한 울이라고 한 것은 오늘날 남녀가 평등하다는 주장의 논거로서 타당하며, 여성의 말을 존중하라고 하여 여성의 능력이 남성과 같다는 것을 인정하였다.¹⁰⁾

8) 『고종실록』 고종 32년 윤 8월 10일

9) 『고종실록』, 권 33, 고종 32년 11월 15일

10) 김경애(1984), 「동학 천도교의 남녀 평등사상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이대 한국여성연구소, pp.173~184.

특히 당시 농민을 비롯한 하위 신분층의 주장인 반상차별 폐지의 요구와 사회신분 평등의 요구를 잘 반영한 것이었다. 그 결과 동학사상은 농민층과 고도의 선택적 친화력을 갖고 결합하여 농민층의 사상이 되었으며, 농민층을 주제로 한 체제개혁을 수행하고 평등사회를 실현함으로써 민족적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였다.

동학의 인간존중사상은 복식에 있어서도 신분계급을 타파하여 계급에 따른 복잡한 복식제도를 없애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동학의 영향으로 관복·사복 모두 周衣 즉, 두루마기를 착용하게 되었다.

제2세 교조인 해월의 여성에 대한 인식은 수운의 가화론을 발전시켜 부화부순의 여성관을 정립시켰고, 남녀간에 있어 절대 평등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 인식은 설법을 통해 민중에게 보급시켜 근대적 여성관을 가지게 하였다. 특히 해월은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여성의 능력을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회의 발전을 위해 여성들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도의 근본도 부인에게 있음을 깨달아 1894년에는 「내수도문」을 지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내수도문」은 근대적 사상과 여성의식을 대중에게 전달시켰던 것이다. 이런 노력은 전국 각지에 주문이 들리지 않는 곳이 없었다는 당시 상황을 통해 민중의 의식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동학의 여성운동은 여권의식 성립에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¹¹⁾

1900년대의 개화혁신운동은 강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각지를 왕래하는 진보회원은 모두 삭발, 黑衣로 고쳐 입고 문명 개화인임을 분명하게 밝힘과 동시에 다수의 군중 앞에서 계몽연설을 감행하였다. 동시에 단발의 장점은 무엇이며 위생상 이로움이 어떤 것인가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세계의 문명인은 단발과 양복 착용으로 문명의 편리함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선전하여 고정된 일반 민중의 통속 관념을 흔들리게 하였다.

재래의 거추장스럽고 비경제적이며 활동에 지장을 주는 흰옷의 한복 차림을 간편하게 개량함은 곧 국제화 시대에 현대인의 책무라고 강조하였다.

경제적인 개화복(양복)이나 개화경(안경) 개화장(단장)을 짚고 쫓아내는 일까지 경향 각지에 백가지 난관을 극복하면서 벽지 낙도까지 보급시켰던 것이다. 유교적인 도덕관념으로 ‘신체발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감히 훼손케 할 수 없다’는 통속적인 의식 때문에 기피하는 선비가 많았다. 따라서 내 머리를 자를지언정 내 머리칼은 깎을 수 없다고 저항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그리하여 단발령이 철회되었던 일도 있었는데, 동학교도 16만명의 진보회원이 하루에 일제히 단발하고 양복을 착용하였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인 것이다. 사람마다 저고리 소매와 바짓가랑이가 넓다란 흰옷 차림으로 다니던 그 시절에 감연히 좁디좁은 검은 염색한 세련된 옷을 입고 나섰다는 것은 새

11) 李炫熙(1994), 『東學革命史論』, 大光書林, pp.403~407.

삼스럽게 동학교인의 용기를 찬탄치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한때는 메리야스 내의를 양복인 줄 알고 이것만 걸쳐 입고 백주에 대로를 활보하였다는 초창기의 일화는 그 당시 진보회원들의 개화혁신운동의 열도와 집념, 그리고 부단한 추진에의 이상 의지들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¹²⁾

동학교도들이 주장한 弊政改革安 12個條의 조문 중에 ‘청춘과부의 改嫁허용’이라는 조항을 볼 수 있다. 1894년 갑오경장의 개혁조문에도 ‘과부 再嫁금지’ 규정을 풀어놓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 영향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여성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말해주며, 이러한 의식은 여성의 교육 및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였고, 후에 양장도입 및 의생활 개선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본다.

동학의 남녀평등사상과 인간존중사상의 영향으로 두루마기와 마고자 등의 복식은 신분과 남녀 구별없이 같은 복식을 착용하게 된 것이다.

4. 己亥詔書와 庚子文官服裝規則

1899년(기해년, 광무 3년) 8월에 出疆 사신의 복식을 외국규모를 참작하여 개정하도록 하여 외교관의 복장이 양복화 함으로써 문관복의 양복화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국내의 문관의 소례복, 즉 착수인 흑단령에 품대만을 더하여 대례복으로 입도록 하였다. 기해년 대소관원의 대소관복 및 賀禮時服을 보면

“조신의 복장을 변동하는 일로 지난번 詔勅을 내린 적이 있었으나 미치지 못한 바가 있다. 출강 사신의 복식은 먼저 외규를 참작하여 개정하고 모든 조정에 있는 관원들은 그대로 소례복을 입되 朝覲할 때와 參班·陪從 할 때에는 다만 품대를 더하여 대례복으로 삼으라. 대개 반령착수는 국초의 유제이며 또한 우리 선종조에서 입던 것으로서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삼가 舊章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하례에는 전과 같이 흑단령 朝祭服을 입으라”¹³⁾

고 하여 그전까지 대·소례복으로 나누었던 것을 소례복인 소매가 좁은 흑단령을 항상 입고 대례복을 입어야 할 경우에는 소례복으로 입혀왔던 흑단령을 착용하고 여기에 흉배만 달아 입게 하였다.

12) 李炫熙(1994), 앞의 책, pp.154~155.

13) 『고종실록』, 권 39, 광무 3년 8월 3일

이상에서 1895년 갑오경장에서 규정했던 제보다 그 형식상에 있어 더욱 간소화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먼저 외교관의 복장에서 시작되어 문관복의 양복화가 시도되었다.

1900년(광무 4년) 4월 17일 칙령 제 14호로 문관복장규칙을 정하고 제 15호로 문관 대례복 제식을 정하여 대례복, 소례복, 상복을 구미식 官服으로 제정하였다.¹⁴⁾ 이는 신라 진덕여왕 이래 착용해 온 중국식 官服이 구미식 관복으로 변천된 것이다.

이때 분포된 문관복은 대례복·소례복·상복으로 대례복은 영국 궁중 예복을 모방한 일본의 대례복을 참작하여 만든 것이고, 소례복은 유럽 제국에서 사용되던 시민의 예복이었던 燕尾服과 후록코트(厚錄高套-Frock Coat)였으며, 상복(常服)은 구미에서 착용하던 시민의 平服이었던 세비로(背廣, Sack Coat)였다.¹⁵⁾

대례복은 문안, 동가, 動輿時 궁중에서 착용하며 勅任官과 泰任官이 입는다. 소례복은 宮內進見(공식적인 모임, 상관에게 인사할 때) 혹은 사사로이 서로 위로하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입으며, 평상복은 소례복과 같은 용도로 입혀지며 임진시, 집무시, 燕居時에 착용한다.

경자문관복장규칙의 반포로 양복화된 문관복이 제정되었다.

1906년(광무 10년) 12월 12일에 분포된 庚戌勅令 제 75호에 의해 1900년에 분포된 복장이 거의 그대로 입혀지다가 대례복 중 상의의 개정이 있었는데 화려하게 가슴 앞부분의 금수(金繡)한 보의 장식을 모두 없애고 검소한 형태로 변화하였다.¹⁶⁾

5. 갑진개혁운동과 언론의 개화운동

19세기말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었던 한반도에서 日帝는 우리나라를 점령한 다음 중국대륙까지를 침략하려는 야욕에서 도발한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에서 승리하자 일제는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점령하기 위한 조치로 韓國駐劄軍을 설치하였다.

1905년 11월 17일에는 우리나라를 일본의 監理 指揮下에 두고 일제가 파견한 통감아 모든 것을 지휘감독하며, 외국과의 조약체결권을 박탈하는 強盜的 조약인 이른바 을사 보호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후 1906년 2월 1일에는 우리나라에 統監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권을 상실하는 실질적인 식민지 종속국으로 轉落하고 말았다.

14) 『고종실록』, 권 40, 광무 4년 4월 17일

15) 朴永哲(1977), 「한국의 양복변천에 관한 연구」, 『목화』, 6, 동덕여대, pp.121~122.

16) 『고종실록』, 권 47, 광무 10년 12월 12일

손병희는 개화사상을 주창한 『三戰論』과 『明理傳』 등의 글을 통해 공개화하고, 1904년 李萬植(李容九)을 歸國시켜 進歩會를 조직케 하여 일시에 100만 徒衆으로 하여금 甲辰改革運動을 추진케 하였다. 이와 같은 갑진개혁운동으로 교세가 확장되자 교단은 근대적 종교형태를 피하여 1905년(광무9년)12월 1일 東學을 天道敎로 大告天下하였다.

萬歲報는 구한말 격동의 시기 1906(光武10년) 6월 17일에 일제의 언론통제 하에서 일간지로 창간되어 1년 남짓동안 국권회복과 개화사상을 鼓吹하기 위한 국민지식계발의 교육기관 역할로 초창기 우리나라 言論暢達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천도교의 새로운 敎書와 宗命, 그리고 전국 각 지방의 교구조직과 성화회 활동을 널리 게재함으로써 敎회기관지로서의 사명을 다 하였다.

만세보의 사설에는 여성교육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婦人開明」과 「여자교육회연설」, 「부인사회」등과 아울러 「내외법」과 「개가법」, 「婚喪祭禮改良議」등을 논설로 다루어 여성교육을 통해 남존여비사상이나 男女七歲不同席과 같은 봉건사회의 폐습을 타파하고 남녀평등권을 주장하는 동시에 二世子女를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가정교육이 교육의 근본이 되어야 하며, 여성에게도 사회적 문호를 개방하고 특히 改嫁法 시행과 혼상제례개량을 정부에 촉구하는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개혁을 주장하는 論調를 펴고 있다.

논설 「男女衣制改良」과 「服色」, 「帽子改良」 및 「最先希望」은 여성교육을 통한 생활양식의 개혁으로 의복을 개량하고 후의를 착용하는 동시에 상투를 잘라 버려야 한다는 단발령의 시급함을 역설하여 경제상 위생상의 이익으로 국운을 부강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⁷⁾

독립신문 1896年 4月 21日자와¹⁸⁾ 1896年 9月 5日자¹⁹⁾, 1897年 4月 20日자에는²⁰⁾ 여자를 남자와 동등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1906년 5월 31일자 제국신문의 “여자들이 외국복식을 착용하는 이유”라는 논설에서 “남자도 수족이외에 살이 보이면 체면을 잃었다고 하는데 하물며 여자이겠는가. 여자의 저고리는 소매만 있고 길이가 없어서 아무리 단속해도 허리가 보이므로 정부에서 의복제도 반포하기를 기다릴 수 없어 일본여자의 복식이나 양복을 입으니 그 여자들이 외국

17) 서울교구 신인간 편집위원 이동초, 「천도교일간지 만세보에 관한 고찰」

18) “세상에 불쌍한 인성은 조선 녀편네니 우리가 오늘날 이 불쌍한 녀편네 들을 위하여 조선 인민의게 말하노라.”

19) “계집 〇희들을 敎育을 시키거드면 몇기가 아니 되어 전국 인구 반이나 내버렸던거시 쓸 사람들이 될터이니…… 조선 유지각한 녀인네들은 당당한 권리를 셋기지 말고 아모썸록 학문을 빙화 사나회들과 동등이 되며 사나회들이 못하는 스업을 홀 도리를 하여 보기를 바라노라.”

20) “남녀를 敎育 식혁 주는거시 곳 쌍에 거름을 부었다가 몇달 후에 곡식을 심으는 것과 〇한 지라.”

복식이 좋아서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옷으로는 무엇을 쓰던지 타지 않고는 길에 나갈 수가 없어서 값이 비싸고 법 밖의 일을 부득이 행한다.”고 하였다.

1906년 6월 1일자 제국신문의 “의관의 제도를 일정하게 할 일”이란 논설은 대한자강회의 평의장 윤호정씨가 일본에 갔을 때 그 처자의 옷은 소매 없는 첼릭과 같은 것이었다. 즉 옷깃은 양복과 비슷하고 저고리 아래 도련에 주름잡은 치마를 단 것으로 일본 옷이나 양복과 다른 대한제국의 옷으로 일본사람들이 칭찬했으며, 머리에 쓰는 것을 강구하여 의관제도와 예모를 분명하게 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또 1906년 11월 22일자 만세보의 “여자의제개량”은 현재 부인의 덧저고리에 주름잡은 치마를 연결했는데 서양부인복과 염의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금고(今古)를 참작하고 동서를 절충한 훌륭한 의제라고 하였다.

1907년 6월 19일자 제국신문의 “부인의 의복을 개량할 일”이라는 논설에서 “저고리나 적삼은 앞뒤섶을 조금 길게 하여 수구와 도련에는 선을 두르거나 양복 모양으로 아로새겨 달고 치마는 도랑치마로 하되 통치마로 만들어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치맛자락이 벌어지지 않게 하라고 했다.”

1898년 9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단체인 ‘찬양회’가 조직되었고, 1905년에서 1910년 사이에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여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인 여자교육회·대한부인회·진명부인회·양정여자교육회·대한여자홍학회 등이 설립되었다.²¹⁾

Ⅲ. 개화기 복식의 변천

1. 남자복식의 변천

1876년 최초의 수신사로 일본에 간 김기수는 소매통이 좁아진 학창의를 입고 있었다. 1882년에는 일본의 문물을 배우기 위하여 수신사로 파견한 박영효는 일본에서는 양복을 착용하였으나 귀국할 때는 한복을 다시 입었다.²²⁾

1883년에 미국에 파견된 보병사 홍영식은 도포를 입었고 민영식은 주의 위에 담호를 입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 때 보병사의 정사로 갔던 민영익은 갓을 쓰고 신발까지 모두

21)·유수경(1990), 『한국여성양장변천사』, 일지사, pp.47~48.

22) 朴永哲(1977), 앞의 책, pp.119~120.

한복을 입었다.²³⁾ 한편 보빙대사들은 양복을 입은 채로 귀국하여 국내 최초로 양복신사가 되었고 그들의 영향으로 복제개편이 시도되었다.²⁴⁾

개화기의 국가정책에 따른 관복의 변천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개화기 官服의 변화

년 도	의복제도 개혁	官服의 변화
1884년 이전		紗帽, 廣袖 홍단령(관등별 흉배부착)
1884년	갑신의제개혁	紗帽, 窄袖 홍단령(궁내외 공고, 진현시 흉배부착)
1885년	갑오경장	官服의 대례복, 소례복, 常服 제정 · 대례복 : 사모, 흑단령, 品帶, 靴子 · 소례복 : 사모, 흑단령, 束帶, 靴子 · 상복: 주의(두루마기), 답호, 사대
1899년	기해조서	외교관복의 양복화 文官服 : 소례복에 흉배만 부착하여 대례복
1900년	문관복장규칙	官服의 양복화 · 대례복 : 수연미복, frock coat, 긴바지, 가죽구두 · 소례복 : 연미복, frock coat, 긴바지, 가죽구두 · 상복: sack coat, 긴바지, 가죽구두
1908년	경술칙령	대례복 중 상의의 개정 : 가슴 앞부분의 금수한 보장식을 없앴

2. 여자복식의 변천

여자복식은 초기에는 외래문화의 접촉으로 인하여 한복을 활동에 편리하도록 개량하였으나 점차 양복을 착용하게 되었다. 평등사상으로 인하여 신분의 구별없이 아얌과 두루마기를 착용한 부인, 기생의 옷차림이 같았다. 마고자는 옷깃이 없고 앞이 여며지지 않고 길의 좌우가 마주 대하는 엉덩이 정도 길이의 겹옷으로 1885년 대원군이 천진에서

23) 이광린(1974), 『한국개화사연구』, 일연각, p.288.

24) 이광린(1974), 앞의 책, pp.273~286.

입고 온 마패가 국속화 된 옷이다. 그 후 여자도 마고자를 입었으며 양반의 부인뿐 아니라 기생들도 입었다.

외국문물과 지식의 영향을 받은 신여성이 편리한 양장을 선택하게 되었다. 유학을 다녀오거나 상류계층의 부인들 주로 외교관의 부인, 왕실여성들이었다.

한편 재봉틀의 도입과 기계화된 외국자본으로 면공장의 설치와 외국옷감의 유입이 의생활 발전에 큰 계기가 되었다.²⁵⁾

1890년대에는 양장 차림이 등장하였고, 최초의 착용자에 관한 논의가 다양하다. 1899년 윤치오의 부인인 尹高羅(尹高麗라는 설도 있음)가 효시가 된다는 견해²⁶⁾와 당시의 신문기사에 등장하는 경옥당이라는 여인이 최초일 것이라는 견해²⁷⁾가 있으며, 1895년경 고종 황비인 엄비가 양장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를 최초의 양장 착용이라고 보는 견해²⁸⁾도 있다. 이 시기 양장의 공통적인 특징은 깃스 걸 스타일, 지고 드레스, 버슬 스타일 등 S자형 실루엣이며, 대부분이 긴 플레어스커트에 트레인이 달렸다. 한편 일반 부녀자들의 저고리는 20cm 안팎으로 매우 짧아 가리개용 허리띠가 필요할 정도였으며, 긴 치마를 입었으나 하류층 여성들은 폭이 좁고 짧은 ‘두루치’를 입기도 하였다.²⁹⁾

머리모양도 처녀는 땃기머리, 부녀자들은 쪽진머리나 엷은머리였으며, 어머머리나 큰머리의 궁중 양식도 그대로 존재하였다. 양장의 경우에는 머리를 위로 올리고 레이스로 장식한 챙이 넓은 모자를 쓰기도 하였다.

신발은 이른바 개화 짚신이라는 혼직초혜가 유행하였다.³⁰⁾ 양복이 공인되고 고종과 엄비가 구두를 신자 1895년경부터 일부 상류층에서 양장에 구두를 신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윤 고려(윤고라)의 양장은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였던 S자 스타일이었고, 비단 양말, 굽 낮은 펌프 슈즈를 신고 리본과 새의 깃털, 조화로 장식된 모자를 쓰고 양산을 들고 있다.³¹⁾

1900년 미국 오하이오 웨스리안 대학을 졸업한 하란사가 양장을 하고 귀국하여 줄곧 양장차림을 하였다. 이화학당에서 영어와 성경을 가르치며 기숙사 사감으로 있었던 하란사는 클래식한 양장차림으로 최고의 품위를 가진 서양식 신여성의 모델 같았다고 한

25)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1972), 『한국여성사Ⅱ』,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248~249.

26) 유희경(1980), 『한국복식사연구』, 이대출판부, p.247.

27) 남운숙(1989), 「한국여성복식제도의 변천과정연구」, 세종대학 박사학위논문, pp.70~71.

28) 박경자(1989), 「일제침략시대의 복식연구」, 『한국복식논고』, 신구문화사, p.240.

29) 유희경(1982), 『한국복식문화사』, 수학사, p.352.

30) 유수경(1990), 앞의 책, p.132.

31) 앞 책, p.247.

다.³²⁾

1900년에 미국 볼티모어의 여자의과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가 된 박 에스더가 양장을 착용하고 귀국하였는데 윤 고라나 엄비의 화려한 S자형 드레스와는 달리 안에는 블라우스를 겹에는 퍼프슬리브 자켓을 입어 우아하고 검소한 양장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³³⁾

1907년에 최침단의 새로운 여성의 머리모양이 등장하였다. 일본에서 귀국할 당시 ‘팜프도어’ 또는 ‘히사시까미’ 로 빗고 양말에다 구두를 신고 검정 색의 짧은 통치마를 입었다. 귀밑머리를 풀어서 머리를 치켜올려 빗어 뺨머리를 만들고 머리 꼭대기에 쪽을 지은 이 머리모양은 여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기능적으로 편리한 여자 개량복의 필요성을 신문과 여성단체에서 주장하여 저고리의 길이가 길어지고 통치마나 주름잡은 치마를 입게 되었다. 그러나 양장 또는 일본 옷의 착용은 경고하였다.

(1) 장옷의 폐지

장의착용 폐지 및 의제개량이 요구되는데 장의는 내외법의 한 유형이며 전통적인 의제로 사회활동에 불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의제개량론은 1905년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어 만세보 1906년 11월 23일자 논설에서 의제개정론을 통하여 장옷착용 폐지론을 주장하고 모자착용론을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장옷폐지의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져 이홍래가 모자제조회사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모자의 착용이 널리 보급되지는 못하였다.³⁴⁾

1900년대에는 1898년 장옷을 폐지하고 대신 우산을 지니도록 정하는 상소³⁵⁾를 시작으로 여성 복제개량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장옷의 폐지는 내외법의 철폐에 따른 당연한 요구로서 일부 고관부인이나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 및 여학생들은 이미 장옷을 벗고 자유스럽게 활동을 하였다.³⁶⁾ 이것이 일반 부녀자들에게도 유행이 되어 우산을 장옷의 대용품으로 사용하였으며, 흰 수건을 우산 대신 사용하기도 하였다.³⁷⁾

위와 같이 장옷의 폐지와 함께 의복의 개량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도기적 현상으로 내외를 위한 양산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모자의 착용이 널리 보급되지 못한 것은

32) 民淑鉉(1981), 『한가람 봄바람에』, 지인사, p.501.

33) 民淑鉉(1981), 앞의 책, p.72.

34) 만세보 1906. 11. 23. “복식은 남자 적오리에 치마입고 머리난 서양부인의 머리갓치 쪽지고 머리에 아모것도 쓰지않고 우산을 달고 단이며……”

35) 제국신문, 1898. 10. 12.

36) 황 현(1973), 『매천야록』, 대양서적, pp.338~339.

37) 승의 80년사(1983), 『승의80년사』, 학교법인 승의학원, p.89.

장옷이 머리카락보다 얼굴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었으므로 모자보다는 양산이 적합하였을 것이며, 1910년 이후 장의 대신 양산의 보급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2) 저고리와 치마

1910년대에는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 전도 부인이나 여학생들의 저고리길이는 길어졌으나 일반 부녀자들의 저고리 길이는 오히려 짧아졌다.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짧은 치마, 일반 부녀자들은 긴치마를 입음으로써 치마길이가 2중 구조로 변하게 되었다.³⁸⁾ 치마가 짧아지는 경향과 더불어 버선목이 길어져 갔으나 신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3) 양장

이 당시 양장은 하이네크 라인에 모자를 쓰고, 길이가 긴 드레스나 블라우스에 롱스커트를 입은 차림이 최첨단의 스타일이었고, 스커트의 트레인은 사라졌다.

양장은 원피스가 중심이었고 슈트나 재킷, 블라우스와 스커트 차림이 등장하였으며, 초기에는 S자형 실루엣에서 후기에는 앰파이어 실루엣이 나타났다. 스커트의 길이가 변화하여 바닥까지 오던 스커트 길이는 1918년 이후에 발등까지 짧아졌고 네크라인은 대부분이 하이 네크라인이며, 소매는 비숍 슬리브, 종 모양의 7부 슬리브, 퍼프 슬리브 등이었다.

머리모양은 다리미자루, 뽕머리, 둘레머리 등이 여학생들에게 유행하였으나 가장 인기 있는 스타일은 트레머리로 점차 가발의 분량이 줄면서 가리마에 땡기를 드리우는 스타일로 변화하였다. 양장모자로는 1915년경부터 카프린과 카노체라는 챙이 넓고 화려한 모자를 쓰기 시작하였다.

IV. 개화기 복식의 도덕성

복제의 개혁으로 과거 신분제에 따른 복식의 한계가 흐려지고 서양복식이 밀려 들어와서 우리나라 개화기의 복식문화는 과도기적인 혼란을 겪게 되었다. 신문의 사설은 여러

38) 유희경(1982), 앞의 책, p.438.

가지의 새로운 복식양상과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내용을 싣고 있다.

개화기 복식에 나타난 도덕성을 정숙성, 유행성, 사치성, 기능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³⁹⁾

1. 정숙성

‘정숙성’은 복식의 전통과 관습을 중시하고 예의와 단정함, 보수적인 외모를 고수하며 특히 신체노출과 성역할의 혼돈을 거부하는 태도이다.

1895년 개화내각에 의해 단행된 ‘단발령’은 머리카락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고유인습에 비추어볼 때, 우리의 전통복식문화를 근본부터 와해시키는 가장 충격적인 조치였다. 불의의 단발령으로 인해 도처에서 곡성이 진동하고, 최 익현 같은 유림은 “내 목은 잘라도 상투는 못자른다”며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소위 체두관(剃頭官)까지 출동시켜 이를 강행하였고, 당연히 극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상투머리 시민은 시골로 피난을 가고 일부 용감한 시민은 식칼을 갈아 문전에 놓고 단발조의 침입에 저항했으며, 성밖으로 이사하는 사람이 속출했다. 심지어 지방에서는 단발한 남편을 보고 실망하여 자살한 경우까지 있었다. 이러한 소요로 전국이 분기하게 되고 의병이 일어나 무력충돌에까지 이어졌으며, 결국에는 개화내각을 단발령 고시 87일만에 무너뜨리게 되었다. 단발난리는 선조의 유속을 지켜야한다는 수구사상에다 황후인 민비를 시해한 자들이 개화내각의 침입파들이고, 단발은 곧 일본에의 굴복을 의미한다는 상황에서 더욱 치열했었다.⁴⁰⁾

단발령 이후 양복이 일본에 의해 강압적으로 입혀지면서, 양복을 입은 개화파와 한복을 입은 수구파의 주장은 그들이 입은 의복에 의해 극명하게 표현되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양복의 합리성을 인정하기에 앞서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 때문에 쉽게 수용하지 못했다.

사람마다 말하기를 일진회 복식이 죠호나 일진회원 표가 나서 못하겠다 하나니..⁴¹⁾

이러한 양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향간에 떠도는 노랫가락에서도 “하이칼라 잡놈

39) 신소윤(1993), 「개화기 이후 우리나라 복식의 도덕성에 관한 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p.26~90.

40) 유희경(1980), 앞의 책, pp.615~622 ; “세상 달라졌다 7”, 조선일보 1972. 2. 25.(4) 참조

41) 제국신문 1906. 5. 30.

"42)이니, "양복복장 외국모자 개화장 짚고 촌 갈보 호리기 망맞었네"43) 같은 기사를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여성의 양장의 남성의 경우보다 더 점진적이고 자율적으로 수용되었으나, 초기의 부정적인 시각은 마찬가지였다. 양장의 선구자 격인 배정자가 다래머리와 모자 차림으로 대궐을 드나들자, 大安門의 '安'을 관을 쓴 계집으로 풀이하고 이런 요망한 계집은 나라를 망해먹을 것이라 하여 궁궐출입을 금하고 大安門을 大漢門으로 고쳤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다.

이 당시 여자의 저고리는 극단적으로 짧아져 가슴을 제대로 덮지 못하고 살이 보이기 마련이었다. 제국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저고리 길이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자의 복식이 덕당하다고 할 슈 업산거시 비록 남자라도 슈족밧게(주 : 手足밖에) 붉은 살이 보이거스면 떼면을 일었다 하는데 함을며 여자리오. 우리나라 여자의 적오리란 걸은 소매뿐이오 길이가 업서서 단속 하난 부녀라도 허리가 들어나 붉은 살이 들어나지 안이치 못할즉 만일 처음 보난자로 말하면 그런 괴이한 일이 업고 또 그 위복의 빛이 여러 가지로 유두분면(油頭粉面)으로 단장한즉 남 보기에 사람의 모양 갖지 안이 한지라.44)

1900년대부터 정화, 숙명, 이화 등에서 차례로 장옷을 벗기 시작하였고, 남자학교에서 상투를 자를 때 자퇴소동이 일어났듯이 여학교에서 장옷을 모두 버리게 하자 완고한 부모들의 반대소동이 일어나 자퇴하는 학생이 늘어났다. 1911년 마지막으로 쓰개치마의 착용을 금했던 배화학당에서는 대신 검정우산을 쓰도록 했으며, 이것이 나중에 유행으로 퍼져서 양가집 처녀들도 이를 좇아 양산만 썼을 분 얼굴을 버젓이 내놓고 다니자, 보수적인 이들은 "아이고 망칙스리워라. 여편네들이 어찌 시랄종게(뻔뻔스럽게) 얼굴을 뻔히 내놓고 길로 바장기누(싸돌아다니누).45)"하며 개탄하였다.

한편, 지금까지 화장품은 기생이나 쓰는 물건들로 여겨졌으나, 개화이후 이러한 인식도 많이 변화되어 일반 부녀자들에게도 화장이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여인들은 발의 노출을 몹시 꺼려서 버선을 신고도 치마로 발등까지 가렸다.

42) 조동일(1980), 『신문화 100년』 한국현대사, 6, 신구문화사, p.284.

43) 위 책, p.285.

44) 제국신문 1906. 5. 30.

45) 유송옥(1987), "개화 : 서양복식 유입의 충격과 수용", 『전통문화와 서양문화-그 충격과 수용의 측면에서』,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267.

이러한 관습에 비추어볼 때, 발목이 짧은 통치마의 등장은 굉장한 것이었으며, 치마 아래로 버선 등이 보이자 고루한 이들은 이를 매우 못마땅히 여겼다. 20년경에 이르러서는 여학생 교복으로 짧은 통치마가 일반적인 것이 되었는데, 학교에서는 발목 노출에 신경을 써서, 대체로 무릎에서 발목길이의 1/3로 치마길이를 규정했다.⁴⁶⁾ 그러나, 치마 길이는 점차 짧아져갔으며, 이러한 짧은 통치마 차림의 신여성은 풍자의 대상이 되었다.

여학생 사이에 유행하던 ‘귀가리머리’는 일명 불효머리라 하여 완고한 가문에서 배척 받았다. 예로부터 한국 부녀자들이 머리로 귀를 가리는 것은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기 싫다는 거부의 표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여학생의 땡기머리가 점차 짧아진데 대해서는 별다른 반발이 없다가, 머리끝이 마침내 저고리 길이보다 더 올라가자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가리마 위치도 왼쪽으로 약간씩 옮겨갔는데, 이 ‘왼가리마’는 기생들의 유행이었으므로 굉장한 비난 속에서 여학생 사이에 번졌다.⁴⁷⁾ 또한 1920년 경 트레머리가 예배당쪽 또는 전도부인쪽이라 하여 유행했는데, 평안도 안주의 유림들은 이 쪽을 전 부인들에게 동네 샘터 같은 공공시설의 사용을 금한 일도 있었다.⁴⁸⁾

20년대에 등장하여 ‘모단결(毛斷傑 : modern girl)’이라는 신조어까지 낳았던 단발머리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으로서 단발머리의 가부 또는 시비에 대해 토론회가 열릴 만큼 논란이 분분했으며, 신학문을 한 일부층에서는 찬성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미의 ‘플래퍼’와 연결시켜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사오년 전에 미국에서 여자단발이 한창 유행될 때에 단발한 묘령미인을 ‘플래버’라고 불렀다. 그 의의로 말하자면 묘령의 여자가 의복, 화장 등 외화(外華)에만 주의하고 인생생활의 실책임은 조금도 돌아보지 아니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요사이 자주 듣는 「모단결」도 역시 미국의 「플래버」와 같은 의의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⁴⁹⁾

한편, 20년대에 처음으로 수영복이 등장하였으며, 초기에는 무릎 밑과 팔꿈치만 드러냈으나, 28년경부터는 어깨, 겨드랑이, 넓적다리까지 모두 노출하였다. 유교적 인습이 지배적이던 당시에 이와 같은 여성의 노출은 신기한 일이었다.

2. 유행성

46) 유수경(1990), 앞의 책, p.171.

47) 유수경(1990), 앞의 책, p.159 참조.

48) 유희경(1980), 앞의 책, p.645.

49) 조선일보 1927. 6. 26.

‘유행성’은 새롭게 등장한 이색적인 유행이나, 시각적으로 부조화를 이루는 유행스타일을 거부하는 태도이다.

단발난리로 개화내각이 무너지자 관모의 질서는 갖에 양복을 입는 식의 꼴불견이 되고 말았다. 개화내각이 실각한 3개월 뒤인 1896년 5월 26일자 독립신문기사는 이를 재미있게 기록하였으며, 그 요지는 대강 이러하다.

군사와 순검들이 양복에……상투를 짜고 망건을 쓰고 다니는 것은 조선포교도 아니 오 서양법도 아니다. 긴 머리를 하고 양복을 입고 다니니 보기에도 추하고…… 상투, 망건에 이왕 순령수 복색을 하든지 아예 정돈되게(단발과 양복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만일 의관이 균일치 못하고…… 규모가 불일 하게 드면 보기에 그 나라 규모 없는 것을 훔 볼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인민을 지도하는 직책이 업셔지는 것이라 엇지 그 나라이 법률 잇단 나라이라 하리오…… 슴흐다. 근년에 이르러난 세계 각국의 의관을 다 취하안 사람마다 자기 마암에 하고 심한대로 형형 색색이 몇가지가 되는지 니로 해야될 수 없슨 즉 천하 만국에 그런 나라는 또 다시 잇다고 말할 슈 없난지라.⁵⁰⁾

갑작스런 단발령 이후 우리 전통관습에 따르자면 맨머리로는 나설 수 없으니 쓸 것이 마땅치 않아서 제국신문의 사설은 쓰개를 정부에서 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머리꿍고 망건을 벗은 즉 정부관인도 쓰고 일반 인민도 쓸 거시 잇셔야 한터 이어늘 지금 머리 업난자는 날로 늘어간데 머리에 쓸 것을 정부에서 지시 하지 안 이하야 사람마다 탕건 쓰기로 슈한대 본디 우리나라는 탕건으로 말미암아 나라이 결단이 난 바에 당건은 장차 전국 사람이 쓰게되는 모양이니 그런 나라는 세계에 또 없을 지라⁵¹⁾

엇지 지각 있는 자의 탄식할 바 안이리오. 시무에 유의하신 챔 군자들은 의관제도를 연구하여 덕당한 방침을 엇어 정부에 권고하여 머리 끄난자와 여자의 복식을 일령 지킴으로 멩하야 경제에도 유익함이 되고 남의 웃음도 면하난 거시 가할 듯 하도다.⁵²⁾

50) 제국신문 1906. 5. 30.

51) 제국신문 1906. 5. 30.

52) 제국신문 1906. 6. 21.

한편, 1996년 6월 이화학당에서는 학생들에게 일종의 교복으로서 붉은 목면으로 된 치마 저고리를 입혔으며, 항간에서는 이들을 ‘홍둥이’라고 불렀다. 우리나라의 전통한복은 치마 저고리를 각기 다른 색으로 입는데 반해, 상하동색인데다가 붉은 색인 이 옷은 매우 이색적이어서 사람들이 담을 넘겨다 볼 정도였고 밖에 나갈 수도 없었다.

1900년 이후로 양장여인들이 등장하였고, 이들이 양장에 양산을 들고 길에 나설 때면 처음 보는 양장을 구경하느라 많은 행인들이 둘러싸고 길을 막을 정도였다.

1907년 숙명에서는 자춧빛 원피스에 분홍색으로 안을 댄 본넷을 교복으로 정했으며, 이는 이화의 붉은 치마저고리보다도 훨씬 생소한 것이었다. 이 최첨단 패션을 보고 사람들은 무척 신기해하고 놀라워했다.

3. 사치성

‘사치성’은 의복을 과다소비하고, 고가품·수입품을 선호하며, 급변하는 유행을 지나치게 추종하는 등의 사치와 낭비를 배격하는 태도이다.

개항 이전 대원군은 물자의 낭비와 허례, 사치의 폐품을 억제하고 검소하고 간편한 의복을 장려하기 위해 전통적인 의복제도에 일대 개혁을 단행했다. 신발은 견혜(絹鞋)이상의 사치성 견단(絹緞)신, 금단(錦緞)신, 흰 갓신을 금하고, 표피나 각색 전(麩), 비단으로 안장과 갑옷을 만들지 못하게 했으며, 당하관의 저고리만은 제외하고 누구나 50세 이하인 사람은 명주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

이후의 단발령으로 양복의 착용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1896년(건양원년) 1월 하달된 단발에 따른 복식에 대한 세부사항에서는 관(冠)과 의복의 모양은 외국의 것을 모방되 재료는 국산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또, 1900년대 이후 윤고려를 비롯한 여러 명의 양장여인이 등장하고 일본 의복이 유행하면서, 당시의 신문들이 값비싸고 사치스러운 양장과 일본의복의 착용을 경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⁵³⁾

한일합방이 되자 당시 ‘비단이 장사 왕서방’이라는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비단옷은 그 사치성 때문에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지적받았다. 동덕여학교에서는 검소하고 경제적인 생활이 요구되는 시대라면서 비단옷 착용을 금지하고 무명옷을 교복으로 정하기까지 했다.⁵⁴⁾

53) 유수경(1990), 앞의 책, p.144.

54) “세상 달라졌다 29”, 조선일보 1972. 3. 31.(4)

그러나 한편으로는, 191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벌써 여학생들의 유행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었는지 이를 비난하는 글을 발견할 수 있다.

머리를 말하더라도 재래 히사시까미가 학교 다니는 학생에게는 제일 덕당하겠거늘 어디서 기기괴괴한 유행을 수입하여다가 불란서식이니 파리식이니 하여가지고 엽가르마 탄다. 야엽으로 갈라부친다. 하는 거는 무슨 어리석은 짓이며…… 녀학생의 몸으로…… 노란 깃도(가죽) 아미아게 구쓰(편상화)란 어느 나라가서 배워 온 유행인지55)

신여성들은 유행의 선도자였지만, 이들 사이에 퍼졌던 유행과 사치풍조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 또한 높았다. 당시 신여성은 모든 여성에게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만큼 사회적 기대가 컸기에, 이들의 탈선적인 사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결코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음의 글들에서는 여학생들의 사치를 호되게 꾸짖고, 이를 첩과 기생의 사치에 빗대어 비꼬고 있다. 서울의 사치한다는 여자를 첫째로 신녀성, 둘째로 유한계급의 첩, 셋째로 기생을 들고 있다.56)

요즘 녀학생의 공통되는 병은 사치병입니다.…… 그 외양이 그러케 찬란함을 보고서는 그 물건이 값 비싼 사치의 물품인줄 알는 알 것입니다.…… 가괴일신의 사치를 위하여 이렇게 조르는 녀학생은…… 남의 둘째 셋째첩이라도 사양지 안케 되는 것이겠지요.57)

신여성에게 필수적이었던 구두는 다분히 신분 과시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서, 당시에는 벼 두 가마 값과 맞먹을 만큼 고가였으며, 특히 굽 높고 볼 좁은 하이힐은 폐풍으로 지적받기도 했다.

4. 기능성

‘기능성’은 의복의 물리적인 측면에 관한 것으로, 건강과 위생에 유해하고 신체활동에 장애를 주거나 권리가 불편한 의복을 거부하는 태도이다.

55) 이규태(1979), 『한국인의 안건』 하권, 문음사, p.326.

56) “경성여자의 유행과 사치의 종류”, 동아일보 1925. 8. 8.

57) 이규태(1979), 앞의 책, pp.46~47.

개항 이전 대원군은 큰 갓(大笠)을 작은 갓(小笠)으로, 주의나 도포의 넓은 소매를 좁게 고치게 하고, 긴 갓끈도 짧게 자르게 했으며, 큰 부패를 금하고 작은 부채를 쓰게 했다. 이는 전통복식의 기본구조를 변형시킨 것은 아니었으나, 대원군의 개혁정신은 그 후의 의복제도 개선과 변천에 큰 영향을 주었다.⁵⁸⁾

개항 이후 1884년 5월 단행된 ‘갑신 의제 개혁’에서 창옷의 양옆을 막아 활동적으로 개조한 두루마기가 생겨났고, 소매를 좁히고 자락을 너털거리지 않게 하고, 솔뚜껑같이 넓던 갓 양태를 알맞게 고치도록 했다. 이후 일련의 의복개혁에서 일관된 목적의 하나는 ‘의복의 간소화’에 있었다.

극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단발령’도 애초의 취지는 일상생활의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두식을 개혁함으로써 개화를 촉진하는 데 있었으며, 단발령 고시에서도 “위생적이고 집무에 편리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남자복식은 강제적인 정책에 의해 간소화 된 것에 비하여, 여자복식은 사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개량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당시 각 신문의 논조를 종합해보면, 사치스러운 양장이나 일본 옷 대신 우리 항복을 활동에 편리하게 개량하여 입자고 강조하고, 구체적으로는 장옷과 쓰개치마를 폐지하고, 저고리 길이를 길게 하고, 통치마를 입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남자와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연회에 참석하고 연설을 방청하고 여자교육회, 진명부인회,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의복을 외출에 간편하고 검소하도록 개량해야 한다.⁵⁹⁾

저고리나 적삼은 앞뒤셔울 조금 길게 하여 수구와 도련에는 선을 두르거나 양복모 양으로 무엇을 아로새겨 달고 치마는 도랑치마로 하되 외옷 입고 바로 입는 폐단이 없이 통치마로 만들어서 걸음걸을 적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⁶⁰⁾

한편, 통감정치가 시작되면서 일본인과 일진회 회원들은 때가 잘 묻고 비경제적인 흰 옷 대신 색옷을 장려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흰 한복을 입은 백선들에게 마구 검은 물을 뿌려댔는데, 사실은 일본의 검정광목을 팔아먹기 위한 술책이었다.⁶¹⁾

58) 권규경(1980), 『신생활 100년』, 한국현대사, 7, 신구문화사, p.34.

59) 제국신문 1907. 6. 19.

60) 제국신문 1907. 6. 19.

61) “세상 달라졌다 23”, 조선일보 1972. 3. 22.(4)

1910년대부터는 한복개량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선교사들은 몇 겹씩 뽐뽐 동여매어 입는 한복의 불편한 치마허리를 오늘날의 어깨허리로 개량했고, 이는 활동이 편하고 모양이 고정되고 건강에 좋아서 곧 전국에 유행했다. 또, 전도부인들은 서양 여성 교사를 본떠 저고리를 길게 하고 치마를 짧게 해서 입기 시작했다.

의복생활개선운동은 20년대에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조선여자교육협회’에서는 여성 생활개선에 대한 순회강연을 하였고, 복식에 관하여 “쓰개치마를 벗고, 의복에 물을 들여 입고, 다듬이질을 폐지하자”고 했다. 최은희는 한복의 색이 단조로워서 여성들이 세탁에 허비하는 시간이 많음을 지적하기도 했다.⁶²⁾

당시의 신문이나 잡지에서는 의복개량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데, “어깨에 메고 허리에 두르는 형식으로 여자한복을 개량하고, 남자 두루마기도 길이를 줄이자”⁶³⁾는 제의가 있었고, “조끼허리를 권장하고 저고리의 깃과 동정, 두루마기의 길이, 고름 등을 고치자”는 의견도 있었다.⁶⁴⁾ 특히, 김 원조는 ‘위생’을 옷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조건의 하나로 들고서, 우리나라 여성의 가슴을 동여매는 옷은 “허과의 수축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여 호흡기의 병이 생기기 쉽고…… 肺尖加答兒라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반면 서구여성들은 “가슴을 동여매지 않고 젖통이와 허리를 별정계 드러내놓고 다니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말하며, 저고리를 길게 하고 치마를 짧게 한 개량복을 제시했다.⁶⁵⁾ 각 신문은 20년대 중반부터 정기적인 부인란을 두어 「부인의 의복개량-선결문제는 유방해방」, 「얇고 짧은 여학생 속옷-맵시보다 불치의 병 되면 무서운 일」 등의 제목으로 의생활개선을 일깨웠다.⁶⁶⁾

V. 결론

개화기 복식의 변천은 그 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요인과 국내외정세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복식의 변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2) “세상 달라졌다 30”, 조선일보 1972. 4. 2.(4)

63) “의복제도개량”, 동아일보 1921. 4. 10.

64) 新女性 1924. 11. pp.11~17.

65) 김원조, “부인의복개량에 관한 의견”, 동아일보 1921. 9. 10.

66) “신여성100년-패션의 변화”, 조선일보 1986. 5. 23.(6)

1. 개화사상은 실학사상, 천주교 및 동학, 기독교의 전래, 외래문화의 접촉에 의해 일반국민에게 전파되었다. 실학사상은 초기 개화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끼쳐 官服에 있어서 갑신의제개혁에 따른 복장의 간소화가 이루어졌고, 양복을 입게 되었다. 천주교와 동학의 보급으로 가시적인 복식의 변천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남녀평등주의 사고를 가지게 되었고, 특히 여성의식의 변화와 사회참여, 교육기회의 확대로 여성복식의 개량이 이루어졌다. 기독교 전도부인들의 옷차림을 모방하였는데, 서양여성들의 옷을 직접 착용하기보다 우리 옷을 개량하여 짧아지기만 하던 저고리를 길게 하고 길기만 하던 치마를 짧게 하고, 동시에 뒤트임을 막아 통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리고 형태뿐만 아니라 복색은 짙은 색을 옷감은 우리나라 토산품인 布木이나 麻紵가 좋다고 하여 복색과 옷감에 대한 개량 안이 나타났다. 그리고 외래문화의 접촉으로 다른 계층보다 먼저 외국문물을 접할 수 있었던 외국사절단, 외교관 등의 수행원과 그들의 부인, 왕실여성, 유학생들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우리의복을 개량하여 입거나 양복과 양장을 착용하게 되었다.

2. 갑신의제개혁과 갑오경장, 갑진개혁 등의 개화운동과 동학의 인간존중사상과 평등사상은 복장에 있어서 신분계급을 타파하여 王, 官, 民 모두 周衣를 착용하게 되었고, 양반가 부인뿐만 아니라 기생들도 두루마기와 마고자를 입게 되었다. 그리고 언론의 보급과 여성단체의 결성으로 여성교육의 필요성과 활동하기에 편리한 개량복의 필요성이 주장되어 저고리의 길이는 길어지고 통치마나 주름을 잡은 치마가 등장하였다.

3. 개화기 복식의 변천은 크게 官服의 변천에 의한 한복의 개량과 양복의 착용을 들 수 있다.

우선 남자 복식의 변천은 강제성을 가지는 국가정책의 변화로 의복제도 개혁에 의한 관복의 급격한 변천이 일어났다. 첫째, 官服의 변천으로 한복이 개량되었다. 1884년 갑신의제개혁으로 종전의 廣袖 흉단령이던 것이 窄袖 흉단령으로 바뀌어 활동하기에 편리하며 실용적인 의복으로 전환되었다. 그 후 1894년 갑오경장 이후 관복이 간소화 되어 進宮時 통상예복으로 흑색의 周衣에 답호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다음해 을미개혁으로 공사예복에 답호도 없애고 주의만을 입게 되어 관복이 최대한으로 간소화되었다. 그리고 1895년 11월 15일에는 단발령과 함께 의복제도는 외국제를 채용해도 무방하다고 하여 문관복은 서양식 복장으로 변하였고 1899년 8월에는 교관의 복장이 양복화 하였고, 1900년 4월 17일에는 문관 대례복이 양복으로 변하게 되었다.

둘째, 관복의 변천으로 인한 私服의 변천이 있었다. 1884년 도포·창의 등의 광수인 포가 착수인 주의로 변하였고, 1894년에는 신분계급의 철폐시 모두 사복으로 주의를 착

용하게 하였다. 셋째, 양복의 착용을 들 수 있다. 1899년 외교관의 복식을 시작으로 그 다음해 문관복으로 양복을 착용하게 하였다. 이러한 양복의 착용은 개화파인사들에 의해 주창되어 명령에 의해 변천이 용이한 제복, 즉 관복·학생복 등에서부터 점차 일반인들에게 전파되었다. 이는 현재 착용하고 있는 양복의 효시가 된다.

여자복식에 있어서 궁중예복 및 상류층의 복식은 개화기 이전과 변함없이 착용된 반면 평상복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 기독교와 동학의 보급으로 여성 의식구조의 변화, 여성 교육기관의 설립, 여성의 사회진출이 이루어져 활동하기에 편리하도록 장옷이나 쓰개치마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대체물로 양산이 쓰여지다가 차츰 폐지되었다. 쓰개치마가 폐지되고 통치마 저고리가 수용되면서 이로 인해 저고리 길이는 길어지고, 치마는 짧아지면서 통치마나 주름잡은 치마와 같은 한복의 개량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여성 복식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개량복의 보급에는 기독교 전도부인과 여학생 의복의 영향력이 컸다. 둘째, 외래문화를 먼저 접할 수 있었던 고관 부인, 외교관 부인, 유학생들과 학교 교복으로 양장의 착용이 시작되어 일반인들에게 널리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4. 개화기 복식에 나타난 도덕성은 다음과 같다.

정숙성은 짧은 저고리와 장옷의 폐지로 인한 여성의 얼굴노출이 비난받았다. 유행성과 관련하여 붉은 치마저고리, 양장, 팜프도어, 통치마 등 신여성들의 새로운 차림새가 이색적으로 여겨졌다. 사치성에 관한 비난은 전 시기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외제·고가의 의복의 사치는 고급양장과 일본복, 비단옷, 가죽구두, 하이힐, 장신구, 세비로양복, 빌로드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품목만을 바꾸어가며 꾸준히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기능성은 한복의 비기능성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한복의 간소화와 개량운동은 개화기 이후 30년대까지 활발하였으며, 그 내용은 쓰개치마 폐지, 통치마 입기, 조끼허리 개량, 색옷입기, 옷고름 대신 단추달기 등으로 전개되었다. <끝>

1910년 전후 천도교의 위생론

-치병에서 위생으로-

신 동 원(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연구교수)

1. 동학의 치병과 위생

종교와 치병은 떼기 힘든 관계에 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병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인간의 병에 관심을 가진다. 성인과 현자가 병을 고쳤다는 기록은 부지기수이며, 많은 종교가 그것을 드러내어 포교에 활용한다. 또 종교 경전은 직접 병에 대한 의학을 창안하기도 하며, 독특한 의술과 기도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게다가 병의 원인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종교에 따른 경건한 수행이 병을 극복하게 하고, 몸과 정신의 건강을 유지토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1860년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1824-1864)가 도를 얻어 포덕을 처음 펼칠 때부터 질병 구제는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空中으로 [한울님의] 말이 들리어 갈오되 나의 靈符를 받아 사람들의 疾病을 건지고 나의 呪文을 받아 사람을 가르치되 나와 같이 되게한즉 네 | 또한 長生하여 德을 天下에 퍼리라”¹⁾는 내용이 그것을 말해준다.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광제창생(廣濟蒼生)이 될 것이다. 이 광제창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의학적 측면에서 널리 질병을 구하고 목숨을 오래 살게 한다는 뜻이다. 둘째는 영적인 측면으로 병든 세상을 구제해 도가 영원히 펼쳐지도록 한다는 뜻이다. “영부는 사람의 病을 건지고 사람의 죽은 魂을 救하여 산 魂으로 돌이키며 人間社會의 모든 罪악과 弊瘼을 다스리는 不死藥이니”²⁾ 라는 한울님의 말은 그것을 표현한 것이다.

최제우가 “광제창생”의 도를 펼치던 시대는 정말로 그것이 절실히 요청되던 때였다. 정치적 혼란, 경제적 피폐, 외세의 확장으로 인한 두려움을 차치하더라도, 끊임없는 기

1 『천도교창건사』, 『동학사상자료집』2, 아세아문화사, 1979, 11-12쪽

2 『천도교창건사』, 위의 책, 13쪽

근과 역병, 자연재해 때문에 온전히 삶을 영위하기 힘든 시대였다. 특히 역병의 피해는 대단해서 한 차례 유행에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다. 최제우가 포덕을 시작하던 무렵인 1859-1860년 콜레라 대유행 때에는 사망자 수가 대략 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조선의 인구가 대략 800만 전후였음을 감안한다면, 콜레라 단일 질병으로 인한 사망만으로도 전체 인구의 5%이상이 감소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콜레라 한 경우만을 셈한 것이고, 이에다 장티푸스, 두창, 이질, 성홍열 등 다른 전염병 유행까지를 계산한다면 전염병 피해가 우리의 상상을 벗어날 정도로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³⁾

전염병으로 인한 민중 생활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전염병이 돌면 그해의 농사도 덩달아 지을 수가 없어서 기근이 반드시 뒤따랐다. 1821년 콜레라 유행은 농번기인 4-8월에 있었고 많은 역병이 농사철에 발생했다. 또한 굶주린 사람들은 유민으로 떠돌면서 하루하루 제대로 끼니를 잇기조차 힘들었다. 기아로 인한 처참함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자식을 굶주림 끝에 죽여 먹기도 했고”, “3-4살 난 어린아이를 버리고 도망가기도 했으며”, “남편이 쓰러져 굶어죽어감에도 자신의 죽그릇을 그러잡고 죽을 퍼먹던 여인의 모습”⁴⁾도 있었다. 즉, 평상시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목숨을 앗아가는 역병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은 일반 질병에도 크게 시달렸다. 약으로 고치기 힘든 병이 수도룩했다. 최제우는 신통력을 발휘하여 직접 환자를 고쳤다는 기록이 두 가지 남아 있다. 1861년(포덕2년) 의성 지방 김공서의 외아들의 중병을 고친 것⁵⁾과 1862년(포덕3년) 경주부윤 부인의 졸도병을 고친 것⁶⁾이 그것이다. 특히 경주부윤 부인 치료의 경우 “부윤이 예리를 보내여 대신사께 고하야 같으되 「들은즉 공이 요병의 묘술이 잇다하니 청천대 공은 그 술을 시하소서」 한대” 라는 언급으로 봤을 때 최제우의 치병술이 세간에 상당히 알려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제우는 일부러 신통함과 이적(異蹟)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3 조선 후기 전염병 피해에 대해서는 조 광(趙 珖), “19세기 민란의 사회적 배경”, 『19세기 한국 전통사회의 변모와 민중의식』, 1982, 198쪽을 볼 것. 또한 16세기-17세기 전염병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김 호(金 皓), “16세기말-17세기초 의서(醫書) 편찬의 배경과 허준의 『동의보감』”,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논문, 1993, 4-23쪽을 볼 것.

4 박영규(朴榮圭), “조선조 현종(顯宗) 경신년간(庚申年間)의 기근에 대하여-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향토서울』 19, 1963, 19-20쪽.

5 『천도교창건사』, 앞의 책, 61쪽.

6 『천도교창건사』, 위의 책, 71쪽.

이제 病이 快差되었으니 네 돌아가 告하라하시니 禮吏 | 그말을 傳함에 果驗하였는 지라. 一府中이 다 이상히 생각하고 大神師를 따라 病을 治療하고자함에 大神師 | 다 道德으로써 말슴하시고 조금도 異蹟에 대한 효과를 말슴하지아니하시다.⁷⁾

모든 것은 특별한 신통술 때문이 아니라 “도덕”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김공서 외아들을 치료한 후에도 최재우는 “그것은 모두가 偶然이라 君의 알 바 아니로되 내 그대에게 한 말을 하고자 하노니 삼가 잊지 말라 세상의 큰 病을 고치면 적은 病은 自然히 없어지는 것”이라 말했다.⁸⁾

최재우에게서 치병이 개인적인 행위로 나타나지만, 2대 교주 최시형(1827-1898)에게서는 좀더 집단적인 행위로 나타났다. 최시형은 1886년에 악질(惡疾)이 대유행할 것이라 하면서 교인들에게 악질을 피할 수 있는 묘책을 일러주었다. 그 내용을 「본교력사」(1912년 11월)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포덕 이십칠년 병술에 신스 | 강화의 瘴氣치므로써 도인들은 성심으로 슈도하야 괴질 면홀 도리를 힘쓰라하시다. 이 때에 신스 | 풍용이 문도다려 날너 瘴氣사최 금년에 반다시 악질이 대치하야 슈다흔 인명을 감홀 터이니 그디들은 몸조심을 극진히 하야 疔瘡를 피하도록 힘쓰라 하시고 또 각처도인에게 통지하야 왈 슈도하기를 그전보다 갑절이나 더하되 마음을 직회고 기운을 받으게 하며 전일한 정성으로 주문을 오이며 지성으로 청수를 들어서 써 한울의 다형함을 준비하라 하시더니 과연 괴질이 대치하야 그병에 걸린 자 | 백에 한명이 살기 어려웠스되 오작 도인의 집에는 한아도 걸린자 | 업섯고 또 신신 계신 동리 스십여호에는 비록 교외인이라도 그병 알은 자 | 한아도 업더라.(「본교력사번역」28. 1912.11월, 『한말천도교자료집』2, 209쪽)

실제로 1886년에 콜레라가 크게 유행했다. 아마도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대유행이었다. 최시형은 그것을 예지하고 모든 교도에게 예방에 철저하라고 당부했다. 예방법은 다음 두 가지였다. 첫째, 슈도하기를 그전보다 갑절 더하되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받을 것, 둘째, 전일한 정성으로 주문을 외며 지성으로 청수를 들어서 기도할 것 등이 그것이다. 그 결과 “백에 한 명도 살기 힘든” 그 병을, 동학교도의 집안과 최시형이 사는 마을 40여 호에서는 아무도 앓지 않았다고 한다.

7 『천도교창건사』, 위의 책, 71쪽.

8 『천도교창건사』, 위의 책, 62쪽.

후대의 기록은 「본교력사」(1912년)와 약간 달리 기술하고 있다. 첫 기록인 「본교력사」에서는 “더욱 열심히 수도하는 것”으로써 외부의 역병을 막았다고 했다. 하지만 「천도교회사초고」(1920년)에서는 “지성기도(至誠祈禱)와 심화기화(心和氣和)와 함께 “도량(道場)을 청결케” 했다는 청결(淸潔)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⁹⁾ 또한 100명에 1명도 살기 힘들다는 표현이 “傳染에 免한 자 百에 1이 稀하였으되 오즉 道家에서는 1人도 傳染된 자가 無하고”로 바뀌었다. 즉 「본교력사」의 기록은 병의 끔직한 치사율을 말한 것인데 반해, 「천도교회사초고」는 그것이 높은 발병률로 바뀌어 있다.

1933년에 정리된 「천도교창건사」에서는 또 다른 내용을 띠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布德27년 丙戌(1886) 4월에 神師 | 徒弟에게 일러 갈으되 今年에 惡疾이 大熾하리라 하시고 敎徒에게 一層祈禱에 힘쓰게 하시니 특히 淸潔을 주로 하라 하니 그 要目 인즉 묵은 밥을 새 밥에 섞지 말라 묵은 음식은 새로 끓여 먹으라 침을 아무 데나 받지 말라 만일 길이어든 땅에 묻고 가라 大便을 본 뒤에 路邊이거든 땅에 묻고 가라 糞인물을 아무 데나 버리지 말라 집안을 하로 두 번式 淸潔히 닦으라 하더니 이해 6월에 果然 | 怪疾이 大熾하여 傳染을 免한 자 | 百에 하나이 없으되 오즉 道家에는 所犯이 없었고 神師 | 所居村 40戶에는 病에 걸린 자 | 한사람도 없음에 遠近의 사람이 所聞을 듣고 神師를 찾아 道에 드는 자 | 其數를 헤일 수 없었다.¹⁰⁾

「천도교회사초고」에서는 단지 도량의 청결을 말했지만, 여기서는 “청결”의 내용을 부연했다. 그것은 곧 1)묵은 밥을 새 밥에 섞지 말라, 2)묵은 음식을 새로 끓여 먹으라, 3) 침을 아무 데나 빨지 말고, 만일 길이어든 땅에 묻고 가라, 4)대변을 본 후 땅에 묻고 가라, 5)구정물을 아무 데나 버리지 말라, 5)집안을 하루에 두 번씩 청소하라 등의 내용이었다. 또한 이 기록에서는 또한 교도가 역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소문을 듣고 최시형을 찾아 교도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1888년(포덕29년) 교도를 위한 내수도문(內修道文)에서 정형화했다. 내수도문은 여섯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2조와 3조가 이와 관련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천도교회사 초고』, 『동학사상자료집』1, 아세아문화사, 1979, 431쪽

10 『천도교창건사』, 앞의 책, 128쪽.

1. 집안 모든 사람을 한울같이 恭敬하라. 며느리를 사랑하라. 奴隸를 子息같이 사랑하라. 牛馬六畜을 虐待하지 말라. 만일 그렇지 못하면 한울님이 怒하시나니라.
2. 朝夕飯米를 낼 때에 한울님께 心告하라. 清潔한 물을 길어 飲食을 清潔케 하라.
3. 묵은 밥을 새 밥에 섞지 말라. 흠인물을 함부러 버리지 말라. 痰이나 鼻汁을 아모데나 吐하지 말라. 萬一 길이어든 반드시 묻으라 그러면 한울님이 감응하시나니라.
4. 일체 모든 사람을 한울로 認定하라. 손이 오거든 한울님이 오셨다하고 어린아해를 때리지 말라. 이는 한울님을 치는 것이니라.
5. 孕胎ㅣ 잇거든 몸을 더욱 操心하되 아무것이나 함부로 먹지말라. 모든일에 胎兒를 위하여 操心하라.
6. 다른 사람을 是非하지말라. 이는 한울을 是非하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貪하지 말라. 다만 勤勉하라.¹¹⁾

이상의 추가 과정은 이전의 기억을 더욱 상세히 기록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후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한 것일 수도 있다. 내수도문의 존재로 보아 후대에 임의로 추가한 것은 아닌 듯 보이지만, 시기에 따라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함은 분명하다. 처음 기록에서는 동학의 수도 정신을 강조했고, 둘째 기록에서는 청결에 대한 관심을 약간 드러냈고, 셋째 기록에서는 청결과 위생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 마지막 내수도문에서는 그러한 청결과 위생의 방법이 궁극적으로 한울님과 감응하려는 종교적 청결에서 비롯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신과 감응할 때 청결의식은 많은 종교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새 밥과 묵은 밥을 섞지 말라”, “침을 함부로 뱉지 말라”, “구정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 “대변을 보고 나서 흠으로 덮어라”, “물을 끓여 먹으라”는 구체적인 위생지침은 일반적인 청결의식보다 한결음 더 나아간 측면이 있다.

나는 이러한 위생 지침이 동학이라는 종교의 청결과 관련된 것임과 동시에 근대위생 지식의 수용과도 관계가 있다고 본다. 1876년 개항 이후 서양의 근대위생 지식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1882년에 발간된 『한성순보』를 통해서 일반인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다.¹²⁾ 또한 1885년 콜레라 유행의 조짐이 보이자 조선정부에서는 제중원 의사 알렌을 내세워 방역을 위한 위생 지침을 한성부민에게 포고한 바 있었다. 그 포고문에는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할 것, 하수구에 석회를 뿌릴 것, 물은 반드시 끓여 먹을

11 『천도교창건사』, 위의 책, 130-131쪽.

12 개항이후 1880년대 위생사상의 보급에 대해서는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 1997, 제2장을 참고할 것.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¹³⁾ 나는 최시형이 이러한 근대적 위생지식을 접하고서 그것을 정성과 청결이라는 동학의 정신과 생활의식에 수용해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결과 동학교도는 역병에 전염되지 않았으며, 그것은 광제창생의 이념의 실현을 의미했다.

동학의 위생론은 3대 교주 손병희(1861-1922)에 의해서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1901년 그는 교도를 대상으로 하여 ‘위생에 관한 글월’을 발표했다. 이 무렵 손병희는 갑오농민전쟁 이후 위태해진 교세를 부흥해야 할 입장에 있었으며, 근대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자 마음먹었다. 일본 유학길에 오른 것은 이때문이었다. 일본에는 그는 오세창, 박영효 등 개화인사와 접촉하면서 ‘개화’를 배우고 시국을 논의했다.¹⁴⁾ 1901년 일본에서 잠깐 국내에 돌아온 상황에서 손병희는 이 위생론을 교도에게 반포했다.

이 위생론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생리론, 서양의 위생학 지식을 동학의 교리에 흡수한 형태를 띠었으며 총론과 실행 지침인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각론을 보면 1888년 최시형이 제시한 내수도문은 한층 심화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수심(守心), 정기(正氣), 음식조절(飲食調節), 거처청결(居處清潔) 등 다음 네 가지 조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 守心이니 마음을 잠시라도 精脈이 떠나지 말게할지라 떠나지 안는바는 日用行事간 이것을 念念不忘하야 三端에 相違케말것이며
2. 正氣이니 喜怒哀樂間에 過度히말라. 怒가 過하면 經脈이 不通하고 愛가 過하면 精脈이 不和하고 喜樂이 過하면 散脈이 不調하니 必是大害가 有할지라 慎之慎之하라
3. 飲食調節이니 飲食이 過하면 胃에 溢하고 胃에 溢하면 經絡이 不調하야 消食치 못하는故로 害가 多하니라 人이 食하는物이 多하되 其中五穀은 純然한 精氣라 利가 有하고 餘外之物은 利害가 相反하니 제일 肉類는 害가 多하며 酒類도 또한 多害하니라
4. 居處清淨이니 비록 土屋이라도 内外를 朝夕灑掃하고 居處를 精潔히하며 또는 近處에 水를 棄하지말라 腐敗하야 惡臭가 나면 有害하며 또는 몸을 자조 沐浴하라 몸에 汗津이 많으면 有害하니라.¹⁵⁾

13 김원모 완역, 『알렌의 일기』, 단국대출판부, 1991, 103쪽.

14 『천도교창건사』, 위의 책, 203쪽.

15 『천도교창건사』, 위의 책, 207-208쪽.

수심에서는 마음의 정성이 짝 찬 형태로 유지하는 것, 정기에서는 희로애락에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것, 음식조절에서는 지나친 음식 섭취를 삼갈 것, 거처청결에서는 거처와 신체 위생을 담았다. 거처 청결에서는 집 안팎을 깨끗이 유지하고, 근처에 물을 버리지 말고, 몸을 자주 씻을 것 세 가지를 명문화했다.

왜 이런 각론이 나왔는가 하는 이유는 총론에 담겨 있다. 위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손병희는 “方今世界에 衛生이 甚要하나 人이 모다 定命을 充치못한바 多함은 無他라 生の 根本을 몰음이오 或知하는자 | 有하드래도 그대로 能守치 못하는가닭이라 能知能行한다면 어찌 命을 充치 못하리오”라 말하면서 세계가 위생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방법이 알려져 있으나] 그것을 모르거나 혹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기 때문임을 밝혔다.

손병희는 심(心)·성(性)·정(精)의 삼단론(三端論)을 제기하면서 총론과 위생 각론을 연결지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태어나게 되는 것은 음양동정조화(陰陽動靜造化)의 이치에 따른 것이다. 또한 최초로 생명이 태어날 때 순연한 음양의 이기(理氣)가 교응이 되어 생기며, 형체가 우선 생기고 그 다음에 기(氣)가 접하며, 기가 접하면 사지가 움직이고 이목이 열려 동작하게 되는 것이다. 손병희는 이것이 바로 심·성·정 삼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 셋은 달리 말해 심은 기(氣)이고, 성(性)은 질(質)이고, 정(精)은 뇌골폐부개개질절(腦骨肺腑箇箇節節)에 응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손병희는 동작할 때 심(心)이 먼저 발하여 정(精)을 동하게 하고, 정이 동함으로 몸이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움직일 때 심을 먼저 발하여 백체(百體)에 혈액과 정신이 통한 후에 동작하여야 잘못됨이 없게 되고, 말할 때에도 심(心)을 먼저 발하여 정맥(精脈)이 서로 통한 후에야 소모함이 없을 것이다. 만일 무심코 말을 줄지에 발하면 기혈이 크게 상하게 된다. 음식의 경우에도 무심코 폭음폭식하면 해가 생기고, 기거의 경우에도 무심코 줄지에 동하면 해가 생긴다.¹⁶⁾ 따라서 손병희는 심(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서 수심(守心)이 맨 처음에 놓고, 희로애락 등 심기(心氣)의 지나침을 경계하는 정기(正氣)를 그 다음에 놓고, 몸의 기를 해치는 외부의 음식과 불결한 기운에 대한 경계를 그 다음에 놓은 것이다.

질병 치병과 역병 불전염은 단지 말의 수사에 그친 것은 아니었다. 치병과 위생은 많은 사람이 동학에 입교하게 된 중요한 동기 중 하나였다. 1900년 10월 선천에서 체포된 원의길은 동학을 믿으면 질병을 물리치고 목숨을 연장하며 일생을 편히 지낼 수 있다고 해서 동학에 입교하였고, 선천의 오치덕은 어머니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동학을 믿었

16 『천도교창건사』, 위의 책, 207-208쪽.

으며, 선천의 이원선은 무병연수(無病延壽) 이외에도 자식을 갖게 해준다고 하기에 동학을 믿었다고 하였다. 또한 1901년 영변에서 체포되었던 강병업은 병을 제거하여 주고 농업과 축산업에 도움을 준다고 하기에 동학을 믿었다.¹⁷⁾ 이처럼 “질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게 된다”는 동학에 대한 소문이 신도를 얻는 데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전통은 이후의 천도교에도 그대로 이어져 “우리 도는 세상의 병을 고치는 종교”임을 크게 강조했다.

2. 갑진년(1904)의 단발(斷髮), 그 위생론적 함의

1904년 9월 동학에서는 전 교도가 일제히 단발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어떤 기록은 16만 명이라 하고 어떤 기록은 20여 만이라고도 한다. 단발과 함께 일제히 흑의(黑衣)를 입었다고도 하기 때문에 ‘단발흑의(斷髮黑衣)’ 운동이라고 말한다. 또 이 일이 있던 해가 갑진년이기 때문에 천도교에서는 이를 ‘갑진개화(혁신)운동’이라고 부른다.

천도교 내부에서는 1904년 단발의 자초지종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 그것을 최초로 정리한 「본교력사」(1915년)의 기록을 보도록 하자.

포덕 스십오년 갑진에 성시 크게 인계의 장이를 찌치고려호야 도력을 행하시다.

성스 | 일본서 권동진 오세창 도회연으로 더브러 의론호야 도인 회합홀 계책을 덩 호야 진보회를 조직호라고 취지와 강령과 규측을 만들어 리용구로 호야곰 한국에 건너와 그 일을 주관호게 호니라.

성스 | 곶으샤더 지금세계에 단발안은 나라이 업슴은 다 위상에 유익호고 일호기에 편리함을 위호이니 이 세상에 뜻잇는 자 | 단발호지 안을슈 업슬썩더러 더구나 우리 도인이 머리를 짝지 안으면 도인의 독실호 뜻을 증험홀슈업고 호호 세계사롬의 공본된 인허를 엿을슈업스니 우리종도는 일제히 머리를 짝는 것이 가호다 호시니 그히 구월일일에 도인의 단발호자 | 심륙만여인이라 조선인 두루마기에 모즈썩 제도가 이로 브터 시작호니라.

이찌 각처에서 지목이 심호야 도인이라고 즈쳐호지 못호고 모다 숨어지니는듬 진보

17 『非章訓學存案』(규장각 도서번호 古5125-4). 조규태, “구한말 평안도지방의 동학-교세의 신장과 성격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21집, 1990, 70쪽.

회를 조직하고 처처에 집회가 된다하니 도인들은 죽으나사나 기운을 다하여 세상구경을 하러 나오는데 각군 교졸되는 숨었던사람이 나서는 것을 다행이 녀여 뒤를 따르느자 만든지라.…… 성스 | 오세창 권동진 량한목으로 하야곰 대헌을 만들고 또 교빙벽 만장을 인쇄하야 한국으로 실어보내고 또 권도문을 반포하시다.¹⁸⁾

이 기록을 보면, 1904년 손병희가 전 교도의 단발을 명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일본에 있으면서 권동진, 오세창, 조희연과 논의하여 동학의 “장애를 깨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그것은 동학을 진보회라는 단체로 재조직하고 국정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는 일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동학은 1894년 갑오농민전쟁 이후로 정부의 강한 탄압을 받아 지하에 숨어 있던 처지에 있었던 차, 외세와 근대문물을 배격한다는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근대문물을 수용하여 정치적으로 부활하려고 한 것이 갑진년 ‘개혁’의 직접적인 동기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발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한 것이다. 손병희는 전 교도의 단발을 명했고 그 결과 16만 명이 단발을 했고, [검정] 두루마기에 모자를 쓰게 되었다. 단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손병희가 직접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단발 안한 나라가 없고, 둘째 단발이 위생에 유익하고 단발과 [두루마기를 입는 것이] 일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제히 머리를 깎음으로써 동학의 문명화를 향한 뜻을 드러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세계 사람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즉 동학의 폐쇄성을 벗고 문명화에 동참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상징으로서 단발과 흑의 착용을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넓게 “세계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좀더 직접적으로는 당시 조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일본”의 동학에 대한 의구심을 풀기 위한 것이었다.

『본교력사』보다 5년 늦게 집필된 『천도교회사 초고』(1920)의 서술은 『본교력사』의 서술과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 “성사 왁 若配 大義를 擧코자할진대 반다시 一般道人の 結束이 必要하고 道人の 結束을 鞏固히 하라면 斷髮로써 盟함이 必要하니 먼저 道人の 斷髮을 勵行할지오…… 8월 30일에 성사 | 의 승敎로써 道會의 斷髮한 자 16萬에 至하엿더라.”¹⁹⁾ 여기서는 “세계 사람의 인정”보다는 “도인의 결속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단발을 한 점이 더욱 강조되어 있다. 이에서는 1904년 무렵 동학의 위기의식과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크게 느껴진다.

『천도교창건사』(1933년)의 서술은 단발과 흑의 착용이 “국정개혁을 위한 절규”를 드

18 최기영·박맹수 편, 『한말 천도교 자료집』2, 국학자료원, 1997, 276쪽.

19 『천도교회사 초고』, 『동학사상자료집』1, 아세아문화사, 1979, 511-512쪽.

러낸 것이라 하여 그 의미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이 기록에서는 1904년(갑진년) 7월, 이미 동학이 설립했던 대동회라는 단체를 중립회로 바꾸었다가 다시 이를 진보회로 바꾸면서 4대 강령을 내놓았으며, 단발과 흑의착용은 그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했다. 4대 강령이란 첫째, “황실을 존중하고 독립 기초를 공고히 할 사”, 둘째, “정부를 개선할 사”, 셋째, “군정재정을 정리할 사”, 넷째,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할 사” 등과 같다. 단발과 흑의착용에 관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百萬徒衆을 一朝에 動員케하고 京鄕各地에서 一齊開會하고 斷髮黑衣로써 死를 決하여 政府改革 國情更新을 絶叫하니 이 때에 會員 斷髮된 자 二十餘萬人에 達하고 八域各郡에 進歩會의 旗幟가 森立하니 實로 天地에 壯觀이오 宇宙間 大快事였다.…… 一朝 二十餘萬人之 斷髮과 三百六十餘州의 會所를 設케 된 것은 실로 異蹟이라면 一大異蹟임으로써이였다. 그러나 멀지 아니하여 進歩會의 內容은 곧 東學黨인 것을 알게 되었다.²⁰⁾

이 기록은 이전 두 기록보다 훨씬 웅변적인 어투로 씌어져 있으며, 단발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생략되어 있다. 반면에 단발한 숫자가 16만 명에서 20여만 명으로 증가되어 있다.

학계 일각에서는 갑진년의 단발에 대해 천도교 측의 설명과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 연구자는 단발이 손병희와 일제 사이의 협상 과정에서 일제가 “갑오년과 같이 背日세력화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증표로 단발을 요구”한 것으로 보았다.²¹⁾ 즉 “이 때 단발은 명분은 문명개화와 단결이었지만 실제로는 背日을 안한다는 약속의 표현이었고 일진회와의 결함을 전제로 한 전단계적인 작업으로써 단결의 표시였다”고 본 것이다. 그 결과 “일제는 동학의 막대한 인적자원을 러일전쟁에 동원할 수 있었고, 동학은 일제의 힘을 입어 국가의 공인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이러한 해석의 요지이다.²²⁾

16만 명인지, 20여 만 명인지 정확한 숫자는 논쟁이 필요하겠지만, 진보회를 주축으로 하는 단발과 흑의 착용 운동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일본 측의 보고조사에 따르면, 1904년 11월 11일 진보회 참가자는 평안북도가 12개 군 2만여 명, 평안남도가 18개 군 5만여 명, 함경남도가 7개군 1만여 명, 황해도가 13개 군 6천여

20 『천도교창건사』, 『동학사상자료집』2, 아세아문화사, 1979, 223쪽, 228쪽.

21 박정동, 『侍天敎宗釋史』3편, 1915, 6쪽, 이은숙, “동학교도의 ‘갑진개화운동’(1904-1906)에 대한 연구”, 연세대사학과 석사논문, 1990, 37쪽에서 재인용.

22 이은숙, “동학교도의 ‘갑진개화운동’(1904-1906)에 대한 연구”, 연세대사학과 석사논문, 1990, 38쪽.

명으로 조선 북부 지역에서만 참여자가 9만 여 명에 달하는 수자이며, 이는 전국의 진보회원 수의 약 3/4에 해당하며 전국적으로는 약 12만여 명 정도의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²³⁾ 즉 일본측에서 파악한 숫자와 동학내에서 파악한 숫자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0만 이상의 대규모였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실제로 각 지역의 진보회의 창립 대회에 대해서는 당시의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에서도 상세히 전하고 있다.²⁴⁾

진보회를 흡수한 일진회의 단발에 대해서는 『대한매일신보』 1904년도 음력 8월 17일자(60호)에서 「단발천여」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향일에 일진회원이 단발한 이후로 거리의방학야 단발한 자야 날로 다증가학야 근 일니로 단발한 사롬이 천여명이 되는고로 진고기양복점에 와서 모즈구학는 사롬이 만 타더라.

이를 보면, 서울에서 일진회원 천 여명이 단발한 사실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실제로 이 때 단발에 참여했던 양구군 회장이던 민영순이라는 인물은 후에 갑진년의 단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가평서 진보회를 해산하고 서울을 나온지 얼마 아니되어 진보회가 일진회와 화합하는 동시에 나는 스스로 양구군회장이 되어 개회할 날자는 시월입십팔일로 정하여 일반회원에게 미리 통지는 하고 개회 립시하야 양구읍에를 당도하는데 그 고을 회원들은 구름 모이듯 합니다. 위선 가위 몇개를 준비하여 노코 각처의 회원이 들어오는대로 상투 짜르는 것이 큰일이외다. 가위를 들고 상투를 짜르는 사람이나 망건을 벗고 상투들어서 썰라달나고 대드는 사람이나 모다 병글병글 웃으며 깃뼌을 이기지 못하는 데 회원 아닌 의인들은 큰변이나 난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모아 수군거려답니다.²⁵⁾

이 회상에서는 단발하게 된 결연한 의지와 기쁜 마음으로 단발을 하는 모습, 주변사람의 의아함이 잘 드러나 있다.

갑진년 단발의 전반적인 모습과 의의에 대해서 필명 단발령인(斷髮令人)이 다음과 같

23 “陸海軍往復附一進會”, 『駐韓日本公使館記錄』 참조. 김정인, “1910-25년간 천도교계의 동향과 민족운동”, 1994,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논문, 5쪽에서 재인용.

24 이에 대해서는 조규태, “구한말 평안도지방의 동학-교세의 신장과 성격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제21집, 1990, 85쪽을 볼 것.

25 민영순, “넛치지아는 갑진년개회”, 『신인간』 제2호, 1916.6, 46쪽.

이 충실하게 정리했다.

상투黨이 絶對의 勢力을 가지고 斷髮黨은 勢力이 아주 微弱해야 敢히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甲辰 2月 8日 夜에 旅順에서 日露交戰의 大砲소리가 大地를 울리고 그 餘響이 半島江山을 震撼하니 朝鮮사람의 상투에는 前古에 없던 大受難期가 돌아왔다. 그것은 當時부터 號曰 300萬이라 하고 莫大한 潛勢力을 가지고 있던 東學黨이 進歩會란 政治團體를 일으키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머리를 깎고 染色옷을 입게된 일이었다. 進歩會는 후에 宋秉畯의 一進會와 合勢하다 그들은 원래 宗教的으로 團合이 있고 自覺이 있기 때문에 그 指導者 孫義庵의 命令이 한번 떨어지는 바람에 數十萬 大衆의 상투를 秋風落葉과 같이 無難하게 勇斷한 것이었다.

그때 斷髮하던 光景이야말로 참으로 可觀이오 奇觀이었다. 일시에 數百數十名式이 한곳에 모여서 斷髮을 하니 一般사람들이 駭怪驚愕할 것은 勿論이거니와 그때만하야도 地方에는 아직까지 理髮所도 없고 지금과 같이 理髮器械도 흔치 못하던때이라 자기네 손으로 가위를 가지고 급하게 깎고보니 마치 이붓장인 무덤에 벌초하야 놓은것 같이 머리털이 折半은 듬성듬성남아서 어찌보면 쥐부스럼 앓은 사람의 머리도 같고 또 모양을 본다고 백호칼로 싹싹 깎다가 머리에 포(脯)를 떠서 流血이 狼藉한 사람도 있고 男子는 다만 自覺으로 깎는다 할지라도 그의 父母와 妻子들은 그것을 보고 울며 불며 떠러진 상투를 收拾도 하고 郡守觀察은 그들이 당장에 무슨일을 칠가바 무서워 불불 떨기도 하였다.

머리털을 모아 한곳에 쌓으면 山뎀이 같고 거기에다 또 불을 지르면 그 냄새에 一境의 사람들이 코를 외로 쥘었다. 洞里사람들이 退物網巾을 많이 獲得한 것은 勿論이거니와 宕巾장사, 납작帽子(所謂一進會帽子=갓)장사가 一時에 暴利를 얻었다. 兩班常 有識無識, 少年老少할 것 없이 거기 參與한 사람은 一時宕巾을 쓰게되니 鄭鑑錄에 所謂 李氏之末에 家家及第요 人人進士란말은 거기에 꼭 드러맞았다. 一進會의 末路行 事야 어찌되었던 朝鮮斷髮黨에서 第一功勞者를 褒彰하랴면 누구나 이 一進會를 먼저 손꼽을 것이다.²⁶⁾

여기서 단발령인은 조선 단발의 최고 공로로 일진회, 곧 동학당을 꼽았다. 또 동학당은 의암 손병희의 명령에 일사분란하게 자발적으로 머리카락을 잘랐고,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과감하게 단행했음을 말했다. 끝으로 누구든지 반상(班常)과 노소(老少)를 가지지 않고 머리를 자른 동학당의 모습이 마치 정감록이 말하는 대동세상과 같은 분위기

26 斷髮令人, “「상투」의 受難實話”, 『조광』 제1권 제2호, 1935.12; 216-217쪽.

와 비슷했다고 평가했다.

10여 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일제히 단발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1895년 을미년 단발령의 실패를 곱씹어 볼 때 그 의의는 더욱 크다.

최초의 단발령은 1895년 12월 30일 단행되었다. 이는 을미사변으로 왕비가 살해당하고, 국왕이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었으며, 조정에서 일본의 입김이 쇠퇴하던 정치적 환경에서 단행되었다. 즉, 갑오년, 을미년의 개혁이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터져나온 것이다. 1895년 12월 30일자 내부대신서리 유길준의 이름으로 발표된 단발령에 관한 고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번 단발함은 생(生)을 위(衛)함에 이롭고, 사(事)를 작(作)함에 편하기 위하여 우리 성상 폐하께옵서 정치 개혁과 민국 부강을 도유(圖猷)하사 숭선 궁행하사 표준을 시하십이라. 무릇 무리 대조선국민인은 이와 같은 성의(聖意)를 양체(仰體)하되 의관 제도는 다음과 같이 고시함. 개국 504년 11월 15일 내부대신서리내부협판 유길준

1. 국복(國服)이 신(身)에 재(在)하니 의관(衣冠)은 국복 기한 전에 잉구(仍舊)하여 백색을 사용함.

1. 망건을 폐지함.

1. 의복제도는 외국제를 채용하여도 무방함.

여기서 단발과 의복 제도 변화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넓은 차원에서 정치 개혁과 민국 부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개혁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위생과 일하기 편리함 두 가지였음을 알 수 있다. 단발령은 구습의 혁파와 철저한 개혁의 상징으로 선택되었다. 위생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이같은 강압 조치는 이전에 전무한 일이었다.

상투는 남성, 성인, 결혼 등을 뜻하는 관념, 사회적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중국인과 일본인과 다른 조선인의 수백년 또는 수천년의 역사성이 응축된 상징물이었다. 따라서 조선인들은 상투를 자르는 행위를 위생을 증진시키고,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행위로 인식하기보다는 사회적, 역사적 정체성을 허물기 위한 사악한 의도로 파악하였다. 조선인에게 상투는 조선인을 오랑캐와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전통 중의 하나였다. 만주족이나 일본인, 더 나아가 서양인과 달리 존주(尊周)의 전통이 면연하게 이어져 있는 결정체가 조선인의 의관과 상투였기 때문이다.²⁷⁾

따라서 일시에 강제적인 권력에 의해서 사회적인, 역사적인 삶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27 이근원, 「화이의복변(華夷衣服辨)」, 『금계집(錦溪集)』 권 15.

일반 인민으로서는 치욕을 감수하거나 그에 강하게 저항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했다. 어떤 사람들은 단발을 당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떤 사람들은 관리의 눈을 피해 운둔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총칼을 들고 일어섰다. 지방 곳곳에서 의병이 세차게 봉기했으며, 그것은 단지 단발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단발을 자행한 정부와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였다.²⁸⁾ 이같이 저항이 거세자 1896년 1월말 총리대신 김홍집은 단발령이 단발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단발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²⁹⁾ 또한 2월 초 아관파천이 있은 후 고종은 2월 11일자로 “상투를 자른 것에 대하여 짐이 무슨 할 말이 있는가? 그것이 그렇게 긴박한 문제였던가? 반역자들은 힘과 강압을 사용하여서 상투 사건을 일으켰다.…… 상투를 자르는 경우와 같이 어느 누구도 의복과 땅건에 대해 강요할 수 없을 것이다. 백성을 괴롭히는 악은 정부에 의해 바로잡힐 것이다.”³⁰⁾라는 조칙을 발표하여 일단락 되었다. 발표 직후 집무실을 지키다 체포된 총리대신을 비롯한 대신들이 붙잡혀 거리에서 참수를 당했다. 즉, “상투가 승리한 것이다.”³¹⁾

이후 단발은 국가의 강제가 아닌 자발적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단발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관리가 되려는 자, 기독교 신도 가운데 단발하는 자들이 생겨나기는 했지만 그 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04년 갑진년 동학교도의 자발적인 단발로 해서 10여만 명 이상이 동시에 단발을 단행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³²⁾ 이전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전국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십여만 명 이상이 단발하게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던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단발에는 비록 ‘위생(衛生)’이라는 논리가 가장 밑바탕에 놓여져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생명을 이롭게 한다”는 그 자체는 단발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일 뿐, 직접적으로 단발을 강제한 논리라 보기는 힘들다. 단발은 “문명화에 동참할 것이냐 아니냐”는 일종의 리트머스시험지라고 할 수 있었다. 달리는 “일본을 따를 것인가 아니냐”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도 강하게 풍겼다. 즉 단발은 근대화와 식민지화 양단에 걸쳐 존재했다. 따라서 그 어디를 강조해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동학교도가 일제히 단발을 시행할 때에도 이 두 가지 측면이 혼재되어 있었다. 동학은 자신의 진보회가 화합한 일진회가 후에 노골적인 친일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근대화의

2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7, 240-277쪽.

2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7, 243쪽.

30 이사벨라 버드 비숍 지음/이인화 옮김,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살림, 1994, 421-2쪽.

31 위의 책, 살림, 1994, 423쪽.

32 이후 일본의 강한 입김 속에서 대한제국은 1908년 고종의 양위 이후 융희 원년 8월에 황제의 이름으로 ‘단발령’과 ‘의복개제’를 내렸다.(『황성신문』, 1908, 8월 19일자.)

측면보다는 식민지화에 동조했다는 혐의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진회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손병희는 1906년 동학을 천도교로 고치면서 일진회가 품기는 친일의 색채를 걷어냈다. 그 이후 1919년 3·1운동까지의 궤적을 보면, 천도교는 근대화를 통한 독립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노선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³³⁾ 이런 노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갑진년의 “단발혹의운동”의 의미가 분명해질 것이다. 시천교(侍天敎)쪽에서 주장하는 친일을 통한 교단의 인정이라는 측면보다는 교도, 더 나아가 조선 민중의 문명화를 통한 독립의 쟁취라는 측면이 더욱 주목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자발적인 의지로, 스스로 단발이라는 용단을 내린 데에서는 지도자 손병희의 카리스마 뿐만 아니라 동학교도 자신의 종교에 대한 믿음, 나라의 독립과 자강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타인의 경악 속에서 ‘싱글벙글’ 머리를 자를 수 있었던 힘은 거기에 있었다. 또한 몇몇 개인이 아니라 십여 만의 신도가 일제히 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염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말해준다.

3. 천도교의 위생계몽운동

1901년도에 반포된 손병희의 위생론이 수십치기의 교도의 개인위생에 치중한 것이었다면, 일본에 장기 체류를 마치고 귀국하여 내놓은 위생론은 그보다 훨씬 원대한 국가 차원의 공중위생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것이 동학교도(천도교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양의 근대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입헌군주제 국가를 건설하려는 손병희의 야심만만한 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1906년 일본에서 귀국한 후 손병희는 동학을 천도교로 바꾸는 한편 천도교 중앙본부를 서울에 설치하는 한편, 입헌군주제를 골간으로 하는 자신의 구상을 「준비시대」라는 글로 드러냈다.

이 논문의 총론에서 손병희는 “生理學으로써 其養生을 知케 하며”³⁴⁾라 하여 서양생리학을 양생의 기초로 삼았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서 전국의 지방자치 조직과 활동을 논한 ‘鄉自治’의 부록을 통해 각 지방에서 반드시 해야 할 위생사무를 상세하게 규정했다. 좀 길지만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3 이에 대해서는 김정인, 『일제강점기 천도교단의 민족운동 연구』(서울대 국사학과 박사논문, 2002)의 제1장 “1905~1919년간 천도교단의 문명개화노선과 3·1운동”을 볼 것.

34 최기영·박맹수 편, 『한말 천도교 자료집』2, 국학자료원, 1997, 300쪽.

人的 不幸함은 疾病에서 莫過호니 疾病의 來함은 不潔함으로부터 始함이다 하니 不潔者는 家宅 附近에 腐水와 穢物과 汚濕之氣가 最大함으로 以함이라 是故로 平時에는 家諭戶說호야써 清潔法을 務行호시 厠溷之戶을 密閉호야 其穢臭之洩을 防호며 汚水之道를(汚水者는 澣衣와 滌器의 水야) 疏通호야 其鬱濕之蒸을 祛호고 闔房과 庭階의 灑掃를 恒勤호며 塵芥는 必掃호고 草菜는 必除호야 若怠惰者 有호면 督迫호지며 且市售之物은 腐魚敗肉과 時果의 不熟者는 其販賣함을 禁하며 飲用水에 至호야는 其用意를 尤新호지니 不潔之水는 萬病之源이 됨이라 傳染病이 流行호는 時에 至호야는 豫防之法을 敎行호지니 豫防法者는 病家附近之地에 警戒線을 劃定호야써 行人의 交通함을 遮斷호고 此其家에 臨檢호야 石炭灰酸等物로써 病人의 衣衿과 排泄器(大小便)에 消毒法을 行호야 黴菌을 殺호야 傳染호는 媒介을 絶除호느니 黴菌者는 蟲之極小者이고 現微鏡이 아니면 見之을 不能하는 바이라

凡怪疾과 癘疫과 天然痘등의 一切傳染病이 是等蟲이 皆有호야 或飲食之時를 因호며 或呼吸之氣를 因호야써 人之口腹에 入호면 頃刻에 繁滋호야 其病을 傳호는고로 撲滅을 不爲호면 其蔓延호禍를 遏치 못호지오 若少少遲緩호야 其流布가 已廣이면 全消함을 不得호야 深호면 天下에 橫行호야 無數호生靈을 殺害함에 竟至호느니 小小히 忽호는 切切히 不可호바이다. 盖 傳染病의 毒은 兵禍之慘에서 深호니 戰爭은 對手의 壯丁을 只殺호뿐이며 其圍城도 有限이어니와 傳染病은 老少와 婦孺을 毋論호고 當호는者는 必殺이며 媒介之物을 隨호야 歐洲之蟲이 亞洲에 飛入者도 有호고 美洲의 菌이 濠洲의 流傳者도 有호야 人的 夢想不到호는處에 出호며 意慮不及호地에 至호니 可히 大懼深懼치아님을 不能함이다.

天然痘는 其豫防이 他病에 比호야는 甚易호니 卽牛痘法이시라. 鄉務所에서 篤行호호야 我生이 百日以上者는 必種之케호며 又每春에 全鄉之童穉의게 必施함이다.

獸疫도 亦不可不嚴防호지니 家畜의 牛馬와 鷄狗之類가 其病이 傳染性에 係호는者는 雖人의 所有을 毋論호고 卽殺之深埋호야써 其流播의 患을 絶케함이다.³⁵⁾

여기에 담긴 내용은 전염병을 막기 위한 청결법의 실시,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한 우두법의 시행, 수역 예방 등과 같다. 청결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변소의 청결관리, 하수의 청결 관리, 집안밖의 청결한 관리, 음식물의 청결 관리, 음용수의 청결 관리, 전염병 유행 때의 교통 차단과 검역, 전염병자와 환가의 소독과 청결관리 등이 포함되었다.

사실 이상의 내용은 당시 근대국가라면 어디서나 다 시행하던 것이며, 대한제국 정부 또한 이를 실시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손병화

35 최기영·박맹수 편, 『한말 천도교 자료집』2, 국학자료원, 1997, 343-346쪽.

의 위생론이 가치는 지니는 것은 이런 위생사무가 주민의 자치적인, 자발적인 형태로 해나가야 할 일로 규정되었다는 점이다. 손병희는 이런 위생사무가 모두 각 지방의 향무소(鄉務所)가 주관이 되어 해야 할 일이라 보았다. 대한제국 정부의 위생사무는 아직 지방 각처에서 활발히 위생사무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1906년 통감부 설치 일제의 청결사무는 자발성을 최대한 끌어낸다기보다는 경찰과 헌병의 무단적인 감시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위생은 행정 단속보다 자발적 참여와 계몽이 더 중요하다. 1906년 손병희 「준비시대」 이후에 천도교는 위생계몽에 적지 않은 신경을 썼다. 일제의 강점 이후 창간된 『천도교회월보』의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10년대 초반 『천도교회월보』에서는 적지 않은 위생 내용을 소개했다. 1910년 8월 제1호부터 1913년 제30호까지의 위생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급병치료단방(제1호. 1910.8)
- 구급단방(제4호. 1910.11)
- 음식이 소화되는 시간(제19호. 1912.2)
- ㄹ회 길으는 법(제23호. 1912.6)
- ㄹ회 길으는 법(제24호. 1912.7)
- 미균론란(黴菌論, 제23호. 1912.6)
- 급히 죽은 사람 살리는 법(제23호. 1912.6)
- ㄹ회 길으는 법(속)(제24호. 1912.7)
- 미균론란(속)(黴菌論, 제24호. 1912.7)
- 위상에 힘쓸 일(제25호. 1912.8)
- 위상(전호 속)(제26호. 1912.9)
- 위상(속)(제27호. 1912.10.15)
- 위상(長壽法研究)(제28호. 1912.11)

이상의 내용의 가장 큰 특징은 거의 대부분이 한글로 씌어져 부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계몽과 교화를 위한 것임을 뜻한다.

위의 내용 가운데 급병치료단방(제1호. 1910.8)에서는 갑작스러운 병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딸꾹질이 과도할 때, 목매달아 죽게 되었을 때, 충치가 심할 때, 독약을 먹었을 때, 상기(上氣)되었을 때, 죽은 태아를 빼내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모두 한의학이나 민간요법을 소개한 것이다. 구급단방(제4호. 1910.11)도 서양위생학 지식보다는 한의

학 또는 민간요법을 소개한 것이다. 구급상황으로는 지네를 잘못 삼켰을 때, 바늘을 삼켰을 때, 각종 물고기뼈가 인후에 걸렸을 때, 닭 뼈가 목에 걸렸을 때, 곡식 까끄러기가 목에 걸렸을 때, 나무 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 가위눌렸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급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법(제23호, 1912.6)도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실었는데, 물에 빠져 죽은 자, 얼어 죽는 자, 목매여 죽게 된 자, 얼어 죽게 된 자, 벼락맞아 죽게 된 자, 가위눌려 죽게 된 자, 목매어게 된 자, 광란토사로 죽게 된 자를 소생시키는 법을 담았다. 앞의 기사와 달리 여기서는 주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서양의 인공호흡법을 소개했다. 직접 입을 맞대고 호흡하는 법을 신지는 않았지만, 환자를 눕히고 발이나 복부를 들어 호흡하는 법 등을 제시했다.

음식이 소화되는 시간에서는 쌀밥, 돼지고기, 생계란, 쇠고기와 양고기 따위가 소화되는 시간을 간단히 소개했다. 아이 기르는 법(상)은 두 차례에 걸쳐서 실었다. “신체를 건강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다. 아이들이 천연적으로 운동하려는 것은 본질이니 이를 억지로 억눌러서는 안 된다는 것, 아이의 머리를 쥐어박는 것이 아이의 정신상 좋지 않다는 것, 아이를 해먹 같은 것에 눕혀 흔들어 키우면 좋다는 것을 소개했다.

2회에 걸쳐 실린 미균론난은 본격적인 위생학 지식을 소개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세균의 특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는데, 미균(세균)이 세상에 가득차 있다는 것, 먼지 속에도 미균이 가득하다는 것, 그것을 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먹는 물을 끓여먹어야 하는 것에 대해 계몽했다.

모두 4회에 걸쳐 실은 ‘위생에 힘쓸 일’ 조항에서는 집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생법을 소개했다. 이 위생론에서는 “사람마다 위생에 크게 주의하여 아무쪼록 내의 신체부터 강건케하고 집안 식구로부터 전국동포의 행복을 온전케 하는 것이 가하다.”는 입장에서 위생하는 조건으로 크게 다섯 가지를 들었다.

1. 먹는 물을 취택할 것
2. 공기 좋은 것을 취할 것
3. 음식을 정결히 할 것
4. 운동을 잘하여 음식도 잘 소화케 하고 혈액도 유통케 하는 것
5. 수목을 많이 심어 맑은 공기의 재로는 만드는 것

장수법연구도 비슷한 맥락에 있는데, 의식주의 청결과 함께 장수하기 위한 생활습관과 정신상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양의학자와 생리학자의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이 글에서는 다음 18가지를 장수법의 기본으로 제시했다. 그것은 1. 잠은 여덟시간만 자

고, 2. 잠잘 때에 오른편으로 눕고, 3. 밤이 깊도록 천장에 창을 열고 단층집에는 도리 밑에 구멍을 내어 공기를 잘 통하게 할 것, 4. 자리는 집으로 두껍게 만든 다다미가 좋고, 5. 바람벽에 몸을 대지 말 일, 6. 아침에 냉수목을 불가하고 저녁에 따뜻한 물로 몸을 문지르고, 7. 조석으로 시간을 정하여 산보할 일, 8. 고기를 많이 먹지 말 것, 9. 어른은 우유를 먹지 말되 아이는 무방하고, 10. 기름을 많이 먹을 것(이것이 미균을 죽이기 때문이다), 11. 술은 백혈구를 해롭게 하니 먹지 말 것, 12. 운동을 자주 할 일, 13. 집안에서 짐승을 기르지 말 것, 14. 아무쪼록 복잡한 일을 피할 일, 15. 힘써 맑은 물을 택하여 먹을 일, 16. 때때로 하는 일을 바꾸어 할 일, 17. 때때로 일하던 처소에 떠나서 살 것, 18. 야심을 줄일 일, 19. 성내지 말 것 등과 같다.

1910년대 전후 천도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실천하는 위생생활은 그들이 식산에 근대 지식을 도입하고, 자연과학을 익혀 합리적인 삶의 지침으로 삼는 문명화의 일환이었다.³⁶⁾ 그것은 1910년대 초반 교세가 급작스럽게 확장되어 1916년 현재 천도교 내부의 추산으로 3백만 명, 『반도시론』의 추산으로 1백만 여명³⁷⁾의 신도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는 그것이 이 시기 2천 만 한국인의 1/10 이상이 천도교의 근대화에 따른 위생 실천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 한편으로는 학교 교육과 언론을 통해 위생계몽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와 달리 한편에서는 천도교라는 종교의 내부적인 개화의 발로로서 위생계몽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일제의 강압적인 위생 행정의 결과로서만 식민지 조선의 위생상태가 나아진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혁신의 한 형태로서 위생상태의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끝>

36 김정인, “1910년대 『천도교회월보』를 통해서 본 민중의 삶”, 『한국문화』30, 2003, 327-329쪽.

37 김정인, “1910년대 『천도교회월보』를 통해서 본 민중의 삶”, 『한국문화』30, 2003, 312쪽.

